

# 한국 YWCA

2017년 12월호  
December  
Vol.546

## 한국YWCA연합회 2018년도 정기총회

**내용** 공천위원 선출, 실행위원 인준, 임원 선출  
2018~2019 정책채택  
2018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  
**일시** 2018년 2월 6일(화)~7일(수)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문의** 02-774-9702 koreaywca@ywca.or.kr

 한국 YWCA 연합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 특집

2017 한국YWCA 10대뉴스

#### 기획

교회여, 예수의 처절한 노크소리를 들어라  
차별을 멈춰야 '믿는 페미'들이 돌아온다  
작은 교회가 답이다

#### 칼럼

포항지진은 왜 일어났는가



# 최초의 재활용운동 '코끼리복덕방' 자원절약 '아나바다'로 발전



1969년 4월 28일자 경향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품재활용 물물교환 정보센터는 서울YWCA에 개설된 '코끼리복덕방'이다. 기부물품 판매를 위한 '바자'가 성황을 이루자 서울YWCA는 1968년 10월 26일 매달 마지막 토요일마다 중고품 위탁판매소 '코끼리복덕방'을 시작했다. 흰 코끼리(White Elephant)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신성시되는 동물로 옛날 삼의 국왕이 신하에게 하사했으나 사육비용이 만만치 않자 골치를 앓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버리기는 아깝지만 필요 없거나 처치 곤란한 물건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서양에서는 곳곳에 코끼리를 그린 간판이 붙은 상점을 볼 수 있는데 물건 위탁판매를 해준다는 표시다.

YWCA '코끼리 복덕방'이 회원들과 주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교환하는 절약, 친목의 자리로 인기를 끌자 제조회사들은 저렴하게 제품을 내놓거나 공장가격으로 위탁하기도 했다. 의류, 구두, 장식품, 생활도구에서 가구, 전자제품, 각종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물물교환 과정에서 구입금액의 1%를 YWCA에 구호기금으로 내놨다.

'코끼리 복덕방'은 1990년 YWCA 제1차 바른 삶 실천대회를 통해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로 부활한다. YWCA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한 '아나바다'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물건의 재활용은 물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자원순환의 장으로 활용됐다. 이후 버려시장, 알뜰 상설매장으로 퍼져나가 학교, 아파트 단지, 교회, 백화점, 언론사, 사회단체, 대기업 등도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했다.

1998년 국제금융위기(IMF) 이후 실업인구가 늘자 '아나바다 나눔터'로 통일해 취업정보 제공, 실업상담 공간이 되었다. 생협운동에 접목해 여성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도 다졌다. 절약정신과 재활용운동을 지역 사회에 정착시킨 '아나바다 운동'은 YWCA의 소비자녹색운동이자 공동체운동이었다.



1972년 4월 대구YWCA 코끼리복덕방



1989년 11월 서울 아나바다장터



1991년 청주YWCA 아나바다장터

## 2017.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성탄절을 맞아 아기예수 탄생의 기쁨을 담았다.  
<사진=손지수>

### 2018년 1-2월 주요일정

- 1월 4일**  
신년예배
- 1월 4~6일**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 1월 10~12일**  
Y-틴 전국협의회
- 2월 5~6일**  
신임회장 연수
- 2월 6~7일**  
YWCA 정기총회
- 2월 17~26일**  
2018 사무총장 해외연수
- 2월 23~26일**  
제18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 제53권 제10호 통권 546호

2017년 12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문윤희·손지수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종교개혁 500주년 번곡점에서 | 김명희
- 05 **말씀 묵상** 내 영혼의 유일한 바람 | 송기성
- 06 **성탄예배**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허락소서 | 편집실

### 특집 '2017 한국YWCA 10대뉴스'

- 08 **특집①** 화보 사진으로 보는 2017 | 편집실
- 12 **특집②** 현장 2017 한국YWCA 10대뉴스 | 편집실

### 기획 '한국교회 위기와 개혁'

- 18 **기획①** 한국교회여, 예수의 처절한 노크소리를 들어라 | 박득훈
- 20 **기획②** 차별을 멈춰야 믿는 페미'들이 돌아온다 | 달밤
- 22 **기획③** 작은 교회가 답이다 : 여성의 교회, 모두의 교회 | 안지성

- 24 **창립 95주년 특별기획** 서울YWCA 95주년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 | 신미희
- 26 **칼럼** 포항지진은 왜 일어났는가 | 김성욱
- 28 **청년 주제토크** 열정 같은 소리하네 | 뿌잉·캄자·고궁·워니·코코·하늘

- 30 **이달의 현장①** YWCA 95주년 희망나눔콘서트 관람후기 | 김사랑
- 32 **이달의 현장②** 동해YWCA 30주년 기념식 | 최순옥
- 34 **이달의 현장③** 시민사회단체 '4차 산업혁명' 해외연수 참가기 | 박은실
- 36 **원로에게 듣는다** 차경애 연합회 증경회장 | 편집실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로마서 8:37> | 김지혜
- 40 **연합회 소식**
- 41 **회원YWCA 소식**
- 49 **2017 월간 목차 색인**

# 종교개혁 500주년 변곡점에서

김명희

목사 ·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인 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 한국교회에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성찰로,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며 촉구해 왔지만 교회의 교권주의, 성직매매,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왜곡된 부의 분배, 교회의 사유화, 도덕적, 성적타락 등 부패된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힘의 가치가 중심이 된 교권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더욱 강화해 왔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과 양극화로 이어진 비인간, 비존중, 생명경시 사회를 낳았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죽음의 그늘아래 생명을 위협받으며 불안하게 살던 민중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해 왔던 500년 전 중세 로마의 루터가 살던 그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청이 급속히 세속화돼 정치권력과 의 유착, 교권의 부패, 성직매매 등이 극에 달하던 시절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은 근대사회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500년 전 루터 자신이 종교개혁의 변곡점이 되었던 것처럼 500년 후 오늘 종교개혁의 변곡점은 누군가가 아닌 '나'이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해가는 시스템으로, 그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부정적 잣대들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알

아서 해주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려는 힘의 문화와 그 속에서 합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회와 교회의 일회적인 관심과 나눔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만족하게 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비굴과 무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상처내야 하는 왜곡된 삶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사회의 복지정책과 기독교의 일회적 나눔이 준 결과입니다.

성서는 사회적 약자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 갖고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존중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필요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지는 희생으로 삶의 문제이며,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상생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회복을 증언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적 제적인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대한 대응으로 생명존중 운동이며 사회를 바로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변곡점에 우리 YWCA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회와 사회의 엷힌 타래를 푸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내 영혼의 유일한 바람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목사



## 시편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니, 나의 피난처 이시다. (새번역성경)


다윗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바라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윗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바라는 사람들은 곧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강한 권력, 왕권을 가진 다윗도 자기 존재의 실존 한계를 봤습니다. 권력, 재물, 군사력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온갖 저주를 품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편 속에서 다윗이 체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한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입김에 불과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

하는 신앙을 통해 구원의 평화와 소망의 성취를 기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을 보면 전쟁, 기근, 가난, 사망의 고통이 있는 흑암의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큰 빛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즐겁게 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채찍질 당하는 노예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꺾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반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능력은 있으나 실상 전쟁의 위협과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력과 한미동행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불안과 상황이 극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바랄 것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고백을 공감하고 실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허락하소서

글·사진 편집실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허락하소서’를 주제로 2017년 한국YWCA연합회 성탄예배가 12월 1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명혜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성탄예배는 촛불점화로 시작됐다. 강선임 순천YWCA회장, 조종남 서울YWCA회장, 전배자 강릉YWCA회장이 초박함으로 함께했다. 한반도의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하며 첫 번째 초를, 세계의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하는 빛으로 두 번째 초를, 모든 혐오와 증오가 그치기를 소망하며 세 번째 초를 각각 밝혔다.

예배자들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교독하고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노래했다. 최선화 대학·청년 Y 전국협의회회장이 대표기도를 위해 무대로 나왔다. 최선화 회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패는 곧 죄인 것처럼 완벽을 추구합니다. 취업경쟁과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 속에서 청년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YWCA와 대학·청년Y가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며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별연주 순서에는 실무활동가 이주영 부장과 김은영 간사, 그리고 박능력 청년이 플루트 3중주를 선보여 성탄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다음으로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목사가 시편 62편의 내용

으로 ‘내 영혼의 유일한 바람’이란 말씀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말씀묵상’ 참조).

이어진 평화, 소망, 나눔의 시간에는 이 땅에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석자들이 각자 할 수 있는 평화 실천을 적어 성탄 트리에 장식했다. “YWCA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통일 과정의 이음의 줄기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100주년을 향한 YWCA를 축복해주십시오” “나의 구원, 피난처,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평화 순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순례자의 길을 걷는 YWCA’라는 제목의 평화 영상을 시청하고 송기성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017 YWCA 성탄헌금은 제주 4.3사건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나누는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유성희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사귄과 나눔의 시간은 이명혜 회장의 축하 인사로 문을 열었다. 이명혜 회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70년 분단의 땅 한반도는 여전히 핵무기로 평화를 위협받으며 핵발전소가 세워지고, 여성과 약자들이 혐오와 폭력으로 고통 받는 것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정의·평화·



성탄예배 참석자들이 주제설교를 듣고 있다.

생명을 위한 한해 동안 힘쓰신 자원활동가, 실무자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고 전했다. 해마다 시로 성탄의 의미를 나뉘은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이 읊는 ‘내 마음의 밝은 빛을’이라는 제목의 시

를 지었다. 문권희 실행위원이 성탄 시를 낭독하며 그 뜻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내가 생각하는 성탄’을 한 단어로 표현해 조별로 문장을 만들어 발표했다.



최선화 대학·청년 Y 전국협의회회장이 대표기도를 하고 있다.



김은경 위원, 김재화 명예연합위원(두 번째, 세 번째)이 사진을 찍고 있다.



신선 위원과 황혜숙 위원이 평화 실천을 적은 쪽지를 달고 있다.

### 내 마음의 밝은 빛을

김재화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마음의 창 활짝 열어 불빛을 담자  
열한 달 찬란한 날들 꿈꾸지 못한 가슴에도  
한 해 마감할 때 덜컥 찬양의 달로 다가섰으니  
처음인 듯 그 익숙한 징글벨 소리 반짝이는 불빛들

아- 어두운 날에도 나의 감사기도 지켰으니  
평화의 말들 깨질 때도 또 다른 기대 옮겨가며  
분별 있는 정의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주님의 넓은 시야에서 한 점의 그림자였다

이제 지난날 추억보다 더 밝은 빛을 갈망하며  
불안한 미래 불식하는 은총의 말씀 간절하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망각 아닌 정리의 질서로  
큰 우주 속에 나는 어젠 존재인가 묻고 싶다.

2017년 12월 14일 성탄예배에



실무활동가와 청년이 플루트 3중주를 연주하고 있다.



## ‘YWCA 95주년’ 2017 한해를 돌아보다



95주년을 맞은 2017년 한해도 YWCA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올해 한국YWCA의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YWCA를 빛낸 사람들의 발자취를 들여다보자.

- ① '2017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한해 활동을 다짐하며 찍은 손도장
- ② 사천YWCA가 정기총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1분'을 발표하고 있다.
- ③ 제주에서 열린 제2차 사무총장협의회
- ④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한 세계 여성들이 한국YWCA의 평화비 건립을 응원하고 있다.
- ⑤ 아시아YWCA 지역회의(미얀마 양곤)에 참가한 한국 참가단
- ⑥ 고리원자력 홍보관 앞에서 열린 탈핵문화제에서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⑦ 대학·청년 Y 전국회원대회에서 진행된 '사람책방'
- ⑧ Y-틴 전국회원대회 참가한 청소년들
- ⑨ 대학·청년 Y 전국회원대회 참가자들
- ⑩ 순천YWCA 주암생명숲돌봄센터 개소식
- ⑪ 2017 다래교실비전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⑫ '성평등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YWCA 회원들





13 2년 7개월 중단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전달이 8월 중국 단둥에서 재개됐다. 14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팝핀' 오픈식 15 2017 여성평화걷기(5월 27일)에 참가한 회원들이 웃고 있다. 16 한라산 정상에 여성평화순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17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편'(10월 26일~28일) 참가자들이 평화잇기를 하고 있다. 18 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에서 이명혜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19 95주년 기념식에서 100주년을 향한 소망쪽지를 타임캡슐에 넣고 있다. 20 희망나눔콘서트를 찾은 관람객들 21 희망나눔콘서트에서 가수 린과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2 청년회원들이 희망나눔콘서트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23 '헌법개정과 성평등헌법' 토론회 24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최영애 대상 수상자와 YWCA 회장단 25 이명혜 회장이 제21회 좋은TV프로그램상 대상을 받은 '디어 마이 프렌즈'팀을 축하하고 있다.



# 고백과 회개의 95주년 100년 향한 생명의 바람으로 다시 일어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국민들은 전국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을 밝혔다. 올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YWCA 창립 95주년도 맞이했다.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YWCA는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고백과 회개 속에 이웃과 함께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시 다짐했다. 지난해에 이어 탈핵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돌봄정의운동, 성평등운동, 청소년·청년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특히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후보가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운동, 성평등헌법 개정 의제화 운동으로 바쁜 한해를 보냈다.

## 1

###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



1922년 암매한 여성사회에 빛이 되고자 세운 한국YWCA가 창립 95주년을 맞았다. 4월 21일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고 95주년 주제를 '고백'으로 선포했다. 초기정신을 되새기고 회복하자는 '과거를 돌아보다'(Go Back),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자는 '오늘을 고백하다'(告白), 비전과 희망으로 내일을 향하자는 '100년을 향해 나아가다'(Go 100)를 뜻한다. 95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목적에 충실했는가, 기독교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가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새롭게 확인하고 다짐했다. 또한 전시 성폭력을 반대하고 평화세상을 향한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여성평화상징물' 건립,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WCA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젊은 청년리더십 양성을 위한 'Y피스보트', YWCA 미래를 키우기 위한 '1922장학금 신설' 등을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 2

### 탈핵시대 개막



2014년부터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벌이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에 앞장선 YWCA에 올해는 더욱 특별했다. 올해 3월 7일로 150차를 맞은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기념해 서울 명동거리에서 탈핵 문화공연을 열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6주기에 맞춰 3월 둘째 주를 'No More 후쿠시마' 탈핵주간으로 선포했다. 전국 40개 회원YWCA에서 동시다발로 탈핵캠페인을 펼쳤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함께 광화문에서 3.11 탈핵퍼레이드를 벌였다. 4월 26일에는 시민 26만 1,027명의 서명을 받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을 공약하면서 탈핵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었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YWCA는 전국 52개 YWCA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7일 부산 고리원자력 홍보관 앞에서 탈핵문화제를 열고,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긴급간담회를 열어 공론화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전국 교회와 지역에 전단지 배포했다. 9월 9일 '울산집중 전국대회'에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거듭 건설중단을 촉구했다. 촛불집회 참석,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을 위한 기도순례, 회원YWCA 전국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신고리 5·6호기 건설계개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YWCA는 다시 출발점에 섰다는 각오로 매주 화요일 '불의 날 캠페인'을 지속하며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위한 탈핵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 3 YWCA 유권자운동, 정책선거 이끌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을 시작으로 올해는 3월 대통령 탄핵, 5월 조기 대선이라는 격변기를 맞았다. YWCA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했다. 범여성연대기구에 참여해 여성신문과 공동으로 제19대 대

통령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를 열어 성평등정책 의제화 활동을 벌였다. 전국 52개 회원YWCA는 시민들이 대선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캠페인을 열고 국민의 바람을 귀담아 듣는 대통령을 뽑기 위한 ‘시민발언대’를 운영했다. 5개 회원YWCA는 ‘대선후보 정책분석을 위한 50인 회의’를 구성해 공약 분석 활동을 펼쳤다. 또한 탄핵, 성평등, 청년 3개 분야 56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51개 회원YWCA 대표 4,054명이 서명한 ‘한국YWCA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5개 원내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총 440쪽의 제안서에는 분야별 정책,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재수립을 위한 정책, YWCA 회원대표 요구 연명서가 포함되었다.

### 4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발걸음



사진=여성신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YWCA 회원들의 발걸음은 올해도 계속됐다. 5월 27일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걷기’를 주제로 열린 ‘2017 여성평화걷기’에 12개 YWCA 회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

의 역할’을 주제로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을 주관했다. 10월에는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올해부터 10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년 열리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막이 올랐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라산, 제주4.3평화공원, 탐라공화국, 이기풍선교관에서 진행된 ‘한라산편’에는 95주년을 상징하는 95명의 평화순례자 등 150명이 참가했다. 해마다 한명씩 늘려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을 차례로 오르고, 100주년엔 100명의 평화순례자가 백두산을 오른다. 통일을 위한 간절한 열망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에 해외동포, 북한이탈주민이 동참했다. 이들은 모든 형태의 군사적 행동 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등을 담은 2017 여성평화선언을 채택했다.

### 5 성평등운동 시동 걸다



일제강점기에 창립돼 여성 중심의 애국계몽운동,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혼인신고운동과 축첩반대운동, 여성인권보호운동, 가족법개정운동 등 한국 여성운동사의 포문을 열어온 YWCA가 성평등운동에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여성 임금차별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변화를 위해 2014년부터 펼쳐온 ‘동일임금의 날’ 제정촉구 캠페인은 올해 33개 회원 YWCA로 확대돼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전개됐다. 5월에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교육을 진행했다. 30년 만에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닷이 오른 가운데 성평등한 헌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YWCA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성평등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12월 19일에는 회원YWCA 사무총장과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한 ‘성평등헌법 토론회’도 열었다. 특히 YWCA 성평등운동 전략과 정책과제를 세우기 위해 전국 YWCA 활동가 8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조사’를 실시해 여성단체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 6 페미니즘 물결과 기독교여성주의 발화



‘페미니즘 리부트(부흥)’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페미니즘 열풍은 올해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팎의 여성 혐오는 여전했다. 창립 95주년을 맞아 회개와 고백으로 지나는 역사를 성찰하고 있는 YWCA는 불안한 시대에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고, 이를 통해 100주년을 향한 YWCA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한국사회 여성혐오의 큰 축으로 비판받는 교회

에서 기독교인에게 여성주의는 무엇인지, 그 필요성과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청년, 실무활동가, 자원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신학자와 목회자 등의 다양한 발표와 강의가 펼쳐졌고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여성들’이란 주제의 정론지 <여·세> 5호를 펴냈다. ‘현장에서 만나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2박 3일간 열린 ‘여·세 아카데미’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7

7년 만에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발의



1966년 한국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한 YWCA는 가사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50년 넘게 노력해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돌봄노동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가사노동자가 3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돌봄노동의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은 올해도 계속됐다. 6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제안 접수처 <광화문 1번가>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도 전달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6월 16일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2010년 법안 제안이 무산된 지 7년 만이다. 또한 아이돌봄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도 추진해 표준매뉴얼과 활용 패키지 최종보고서를 펴냈다.

8

청소년 참정권운동, 청년들의 대선정책 제안운동



YWCA는 대선을 맞아 3월 Y-틴, 대학·청년Y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주요 과제와 방향, 지도자상을 묻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였다. 청소년, 청년들은 차기 대통령 선출기준으로 소통과 도덕성을, 시대정신으로는 민주주의 회복을 1순위로 꼽았다. Y-틴은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참정권운동을 펼쳤다. 8월 Y-

틴 전국회원대회에서는 25개 회원YWCA 146명이 플래시몹을 벌였고, 북부지역협의회 Y-틴 200여명은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대학·청년Y는 대선 후보자 청년정책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청년 일자리 등 9개 정책과제를 정리해 5개 원내정당 대선후보자에게 제안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정치키워드로 일자리, 미래환경과 안전, 정치참여를 선정해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키워드 팸플렛'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홍보했다.

9

YWCA 미래세대 키우는 1922장학금



젊은 리더십 양성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 YWCA는 95주년을 맞아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는 '1922장학금'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922명이 1만원씩 기부해 매년 30명의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한국YWCA 100주년을 바라보며 YWCA 창립정신을 기리고자 창립연도인 1922년을 상징해 이름 지었다. 9월 21일 2017년도 YWCA 정책

협의회에서 첫 전달식을 진행하고, Y-틴 중앙임원 9명, 대학·청년Y 중앙임원 5명과 운영위원 1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YWCA는 이밖에도 김활란기념장학금, 손메리·손인실장학금, 고의순나눔기금장학금 등을 통해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원YWCA별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두고 전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의 교육뿐 아니라 뜻있는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10

청소년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오픈



국내 금융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던 시기부터 청소년금융교육 개발에 앞장선 YWCA는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8월 7일 YWCA회관에 씽크머니 상설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Pub-FIN : 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을 개소했다. 씨티재단 후원으로 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2006년부터 운영한 씽크머니는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펍핀'은 '거꾸로 학습법'인 플립드 러닝 방식을 적용해 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지식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사전에 제공해 금융개념을 스스로 학습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법이다. 펍핀 오픈으로 학교, 방과 후 학교, 회원YWCA에서 특정기간에만 진행하던 씽크머니 교육을 상설운영하게 되어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나님을 버린 교회여 예수의 처절한 노크소리를 듣자

박득훈

새삼교회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아버지가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 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형화, 세습, 과세반대, 차별과 혐오 조장 등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짚어보고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 하나님이 사라진 한국교회

올해는 한국교회에 매우 역설적인 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 교회개혁에 열망과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교회가 통렬히 회개하기를커녕 심각한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몇몇 유명 목사들의 성폭행 범죄가 발각되었다. 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놀랍게도 ‘종교개혁, 다시 시작이다’라는 부제가 붙은 포럼을 사랑의 교회에서 열었다. 그 곳은 수천억을 들여 화려한 건물을 무리하게 건축해 지탄을 받아온 교회가 아니던가.

지난 9월 각 교단 총회는 사회와 교회 리더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엔 침묵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단죄와 혐오를 강화하는 한편 요가와 마술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적 교회인 명성교회 측과 옹호세력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코앞에 둔 11월 12일 불법수단을 동원해 담임목사직 세습을 통과시켰다.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날, 아들목사는 ‘명성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자기기만의 극치다. 청년과 여성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회는 교회를 골치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근본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얼굴 피부가 썩어문드러져 가는데 화장만 잘 고쳐서 좋은 인상을 보여주겠다는 식이다.

한해를 마감하며 또 다른 차원의 역설을 발견했다. 비참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가슴 깊이 만났다는 것이다.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는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의 가사가 심금을 울린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다가온다.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려다 뜨뜻미지근해졌기에 예수님은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교회를 다시 얻기 위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토할 것 같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고 싶어 있다. JTBC가 명성교회 세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거기서 우린 예수님의 노크소리를 들을 순 없을까.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차마 버릴 수 없어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언론을 통해서까지 귀먹은 한국교회를 향

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재테크 교회의 바벨탑엔 신의 영역이 없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그 처절한 노크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다. 최근 김진영 철학아카데미 대표의 <한겨레> 칼럼을 읽고 깊이 공감했다. “재테크 교회의 바벨탑에는 신의 영역이 없다” 충격적인 표현이다. 바빌론 바벨탑에는 그래도 ‘인간이 닿고자 하는 신의 영역이 따로 있었다’는 점에 대비했다.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800억원의 비자금을 축적하는 교회에서 신의 영역이 사라진 건, ‘신마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탓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정의와 평화의 신 하나님을 탐욕의 결정체인 맘몬으로 전락시켰다는 뜻이리라. 하나님을 열렬히 부르는데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세습 때문에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이미 상실했기에 세습하지 않고는 교회의 장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대형화에 목숨을 거는 것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작디작은 아기 모습으로 낮고 가난한 말구유로 오시지 않았던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지 않았던가? 오병이어서 5천명을 먹이자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에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해서 다 떠나게 한 분이 아니었던가? 머리 돌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지 않으셨던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께 남은 것이랴곤 아무 것도 없었다. 그 가난과 약함으로 세상의 부와 강함을 이기지 않으셨던가? 베드로에겐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 이름이 있었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할 수 있다면, 성경은 폐기처분되고 다시 기록돼야 한다. 작음에 담긴 아름답고 거룩한 힘을 깨닫고, 작음을 지향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돌이킨 교회다.




명성교회 세습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득훈 목사(오른쪽). 사진=교회개혁실천연대

##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

타락한 목사들은 왜 그렇게도 종교인 과세 도입을 유예하려 했는가. 공개된 바와 같이 목회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른 건 핑계에 불과하다. 상당수 부패한 목사들이 거액의 목회활동비를 교회에서 받아쓰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좋은 사역을 지원하고 싶다면 제안해서 교회가 지출하면 된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 목회활동비에서 지출하고 싶어할까?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돈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맘몬이다. 현금을 사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킨 교회다.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반동성애운동에 집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다. 성령충만한 교회란 신학적 난제였던 할례문제를 자유롭게 열린 토론으로 해결한 초대교회 같은 곳이다. 하나님은 차라리 자신이 아픔을 겪을지언정, 진리일지라도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대다수 한국교회는 성소수자 문제에 토론조차 허하지 않는가? 심각한 주제일지라도 자유롭게 토론할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킨 교회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처절한 노크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회 문밖으로 쫓아낸 예수님을 다시 교회로 모셔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다. 



모태신앙으로 기독교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있다. 신학생이자 전도사이기도 했고, 목사를 꿈꾼 이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마주친 현실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들었다. 성차별, 여성혐오를 견디지 못한 청년, 여성들이 교회를 떠난 것과 달리 그들은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했다. 2015년 12월 '믿는 페미(믿는 페미니스트)'를 결성한 달밤, 더깨더께, 오스칼네고양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청년을 모르는 교회 아재들

지난해 우리 교회 목회자와 지방 감리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 ‘요새 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감리사 목사님은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야속한 모양이었다. 목회자끼리 목회 어려움을 토로하나 싶어 보탠 답시고 “취업이니 아르바이트니 바쁠 테니까요” 했더니 웬걸, 영 글렀다는 표정으로 “아르바이트 해서 명품 백이나 사려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때는 더 힘들고 가난했어요. 그래도 역사의 주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약한 것 같아요. 피해의식에 찌들고.” 가난한 시절을 보낸 ‘으른’ 목사님들, 민주화를 이끈 중년 기독교인들은 청년들이 어떤 세상을 사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들 때 세상이 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먹잇감으로 보는지, 대학교에 가도 학비, 주거비, 생활비로 몇 개씩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삼각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 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대립절 기도회에서 박득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민주화운동 때는 독재라는 명확한 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인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무력한 일이 없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꿈을 앗아가는 것이죠.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없고, 대안이 없기에 절망합니다.”

고통을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는 세상에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거대한 절벽 끝 좁은 길을 아슬아슬 걸어간다. 잠깐 발을 헛딛어도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 추락하는 비정한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아이고 아재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소.

교회는 청년에게 복음과 꿈을 이야기하며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악독한 시대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희망, 복된 자녀로서 타인

과 관계 맺고 ‘우리’를 이뤄갈 수 있는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바깥보다 심한 성차별로 가득하다. “기도 열심히 해야겠네, 곧 자궁 말라비틀어질 나이잖아”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찾은 게 아니다. 여성에게 이런 말을 던져도 대단치 않게 넘어가는 곳, 여성을 ‘순종하는 자궁’으로 인식하는 곳, 지금의 한국교회다.

### 교회 떠나지 말고 ‘믿는 페미’ 하자

“크리스천 페미니즘운동 ‘믿는 페미’를 시작합니다!” SNS에 띄우고 받은 가슴 아픈 말들은 이랬다. “믿는 페미를 알았다면 교회를 뛰쳐나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혐 설교를 듣자니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또 고통을 겪을 자신이 없어 두려워요.” “페미니즘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군요” “여혐 없고 안심하며 다닐 안전한 교회가 있다면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아직까지 모른다. 그렇다고 도망치거나 기다릴 수만 없었다. 목사도 아니고 돈도 권력도 없는 청년, 여성이지만 교회의 물이해와 차별로 밀려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시작했다. 우리 경험과 말하지 못했던 생각을 쓰는 일부터 했다.

그러자 교회에서 성희롱 당하고, 별 거 아닌 일로 분란 만들지 말고 몸가짐 단정히 하라며 꾸지람 받거나, 외모를 비교당하고 옷차림을 지적받고 ‘유혹하는 몸’으로 취급당한 경험이 쏟아졌다. 페미니즘 책모임도 열었다. 앞선 여성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싸워왔는지 공부하고 교회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존재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우리’가 있어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팟캐스트도 시작했다. 못 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여자는 왜 회장이 될 수 없는지, 찬송가는 왜 남자 키에 맞춰 있는지, 여자 전도사는 왜 중고등·청년부를 맡지 못하고 목사가 될 수 없는지 등 시간가는 줄 모르고 녹음했다. 우리의 시작은 더 큰 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믿



‘믿는페미’로 활동하고 있는 오스칼네고양이, 희년, 더깨더께, 달밤 (왼쪽부터)

는 페미들의 사연이 속속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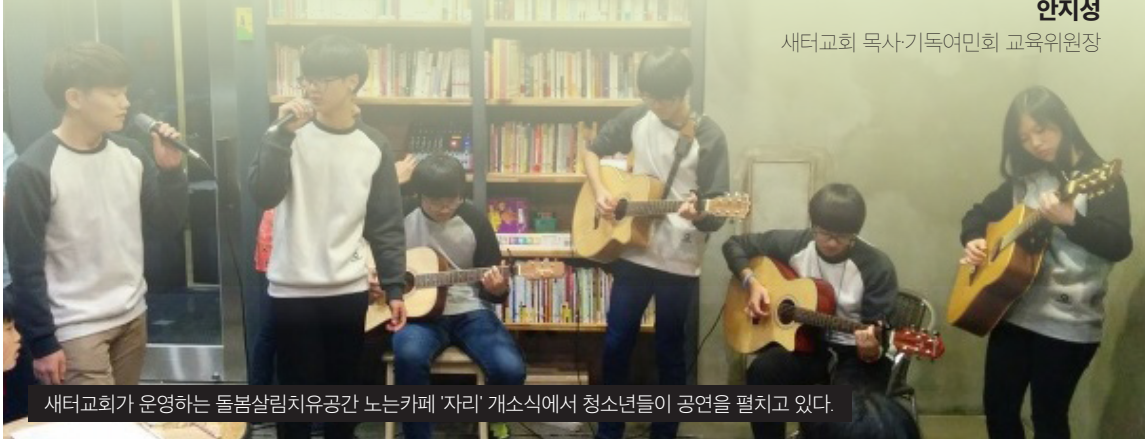
“목회자들이 ‘여자들은’ 남자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 농촌 사역 후 찬물로 야외 샤워를 하면서도 소리내지 말고, 페인트칠 봉사에도 남성을 미혹할 수 있으니 옷을 조심하라고 했다”는 여름 수련회 후기가 올라왔다. 사실 청년을 만나는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여성 단속에 급급하다. “눈이 너로 간음케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사회에 팽배한 성차별적 시선이 남성 위주의 폭력적 방식임을 깨닫고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지 공유해야 한다.

교회에 잠재된 성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아직 버티며 신앙을 지키는 청년들까지 잃고 말 것이다.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 책모임을 만들어 공부하고, 경험을 나누며 토론하고, 목회자는 권위를 내려놓고 타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수련회를 기획할 때 성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젠더부장’을 임명해 활동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개인을 경멸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 차별을 극복하며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남성만이 사람으로 인정받던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개혁할 수 있다면, 변화된 교회의 힘이 사회까지도 살 만한 세상으로 바꿔 놓지 않을까. 

# 작은 교회가 답이다 여성의 교회, 모두를 위한 교회

안지성

새터교회 목사기독교어민회 교육위원장



새터교회가 운영하는 돌봄살림치유공간 노는카페 '자리' 개소식에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1987년 '예수-여성-민중'의 깃발을 든 기독교어민회에서 세운 새터교회는 당시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출발했다. 목회자는 줄곧 여성으로 작은 교회의 가치와 여성 목회의 원리를 실현하려 힘썼다. 지역아동센터, 녹색가게, 가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돌봄살림치유공간 자리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동네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다.

## 소외된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자

지난해 예정통합 총회의 여성 총대(총회대표)는 24명. 역대 가장 많은 숫자였지만 전체 총대 인원의 1.6%에 불과했다. 여성위원회는 노회별로 여성 총대 1명 파송을 요청하는 여성총대 할당제를 현의했다. 통과되더라도 1,500명 중 4.4% 수준인 66명에 그치는 미미한 개혁안이었다. 그러나 발의된 순간 장내는 “아니오”, “아니오”의 물결로 술렁였다. 결국 여성 총대 66명을 세울 수 있는 여성총대 할당제는 압도적인 남성들의 ‘아니오’ 속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같은 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힌 60대 남성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가 기물을 훼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성당의 성모상 목을 부러뜨리고 사찰에 들어가 불상을 내팽개쳤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과 행위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다. 교회는 난동 부린 남성을 징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과하고 불

상 재건을 위해 모금한 모 기독교대학 교수를 해임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한국교회는 몇 가지 개혁 과제를 풀어보는 수준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본질적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 여성, 청년, 성소수자의 눈으로 그리고 이웃 종교인과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 낮은 곳으로 향하는 새터교회

“목사님, 저 조금 충격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차타고 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지하철 타고 갔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상상 못하는 일이거든요.” 새터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내게 하는 말이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목회자에 대한 섬김이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다. 대신 목회자가 섬긴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



우리 사회 약한 것을 복돋는데 교회가 나설 것을 강조하는 안지성 목사가 '작은교회' 토론회(가장 왼쪽)와 세월호 참사 3주기 개신교기도회에 참석했다.

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복음에 따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긴다. 왜일까?

“살다 살다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은 처음이에요.” 지난 성탄절, 우연히 함께 일하게 된 수녀님이 이슬람교 자매들과 교회를 방문했다. IS(이슬람국가) 등으로 이슬람교 전체가 폭력집단으로 매도되던 때다. 수녀님을 통해 들은 소식은 이슬람교 자매들이 방문해서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초대했고 자매들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즐겼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즐거운 성탄은 처음이라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세월호 참사 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꾸준하게 세월호 가족들과 동행하려고 애써왔다. 교회가 한 일은 미미하지만 교회 청년과 목회자들 중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깊이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다. 그들에게 고맙고, 수고한다고 인사치레라도 하려면 그 친구들이 내게 말한다. 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게 제일 편하단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란다. 이 모든 실험은 새터교회가 작은 교회, 여성성의 원리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교회란 무엇일까, 한국 교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여성의 교회, 모두를 위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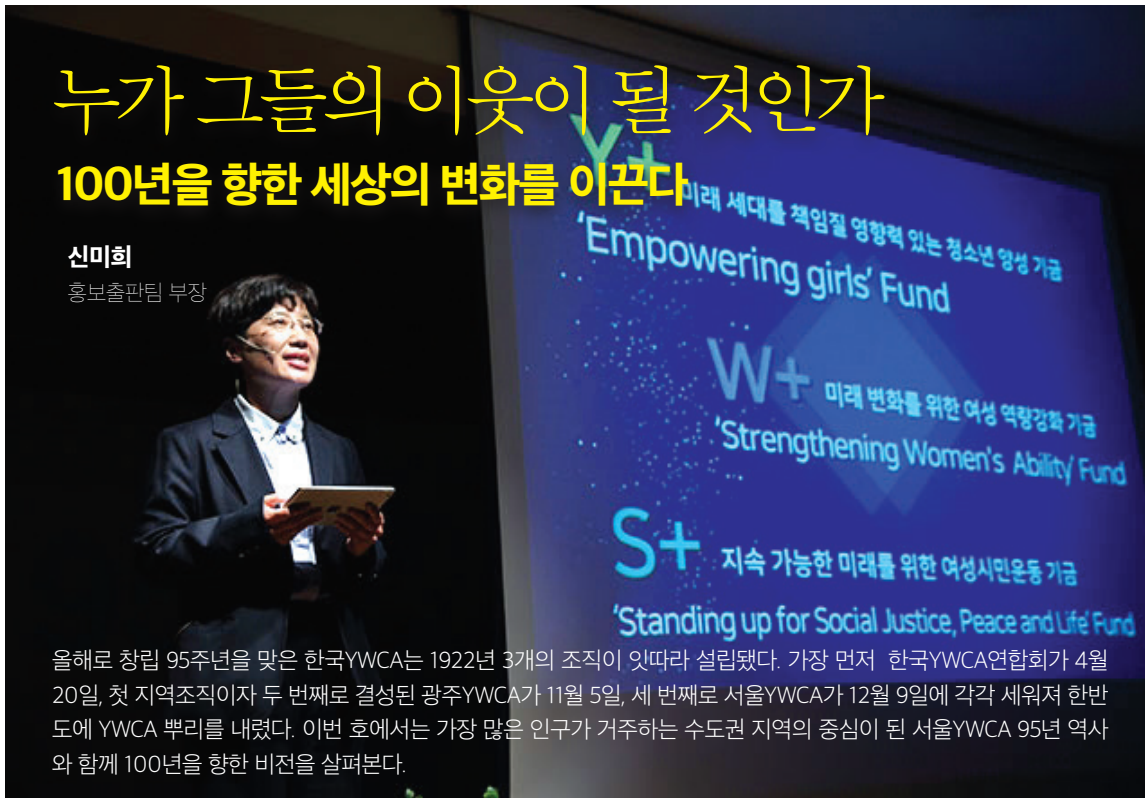
신비하게도 복음은 여성성의 원리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복음은 섬김이라는 새로운 권위를 드러내고, ‘사랑하라’ 말하며 약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도리어 행복하다고 증언한다. 이런 가치는 남성 중심의 가부

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 혹은 정체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성의 헌신적 섬김은 늘 헌신처럼 취급되고, 약한 것과 상처받기 쉬운 것은 열등하게 비하되며, 독선과 같은 정의 추구가 영웅시되었다.

그러나 복음은 고요하고 힘 있게 여성성의 원리를 지지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 세상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 높아지고 싶다면 스스로 낮아지면 돼. 군림하려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찾아서 섬겨. 그러면 저절로 높아질 거야.’

오랜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을 열등하게 여겨온 여성들이 이제야 말하기 시작했다. 연약함의 힘에 대해서, 돌봄과 섬김, 살림의 가치, 다른 것을 수용하는 여성의 지혜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닳았을까? 복음이 전하려던 비밀과 여성들이 드러내는 여성성의 원리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여성의 교회는 여성이 군림하거나 여성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을 나쁘다고 폄하하지 않고, 약한 것을 귀하게 섬기며 어울리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교회는 모두의 교회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는 결국 어른을 행복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풍요롭게 하면 모두 풍요로운 사회가 되듯, 여성이 행복한 교회에서 남성도 함께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약한 것을 돌보고 복돋으면 모두 이롭게 된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은밀하지만 생생한 기쁨을 한국교회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누리길 바란다. 



신미희  
홍보출판팀 부장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은 한국YWCA는 1922년 3개의 조직이 잇따라 설립됐다. 가장 먼저 한국YWCA연합회가 4월 20일, 첫 지역조직이자 두 번째로 결성된 광주YWCA가 11월 5일, 세 번째로 서울YWCA가 12월 9일에 각각 세워져 한반도에 YWCA 뿌리를 내렸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중심이 된 서울YWCA 95년 역사와 함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살펴본다.

**소외된 여성을 위한 계몽과 교육**

서울YWCA는 눈보라가 치던 1922년 12월 9일 겨울 서울 승동(지금의 인사동) 예배당에서 김활란, 유각경, 신의경, 홍에스터, 박양무 등 신여성 30여명이 모여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로 시작됐다.



1931년 야학원 졸업사진

이후 서울YWCA의 주요 활동은 각 회원YWCA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95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서울YWCA는 여성인권 향상,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소외계층 자립

향상 지원, 아동·청소년 권리보호와 건강한 청년문화 육성, 소비자·환경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여성교육과 직업훈련, 소비자운동에서 한국 최초의 실험과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운동의 새 장을 열었다.

나라 잃은 암흑기인 1924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글 야간강습소인 여자노동야학원을 개설했다. 기청여학원, 공민학교로 발전해 2012년까지 글을 모르는 여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초등교육기관으로 88년간 운영된 야학원은 소외 여성을 위한 교육의 모체가 되었다.

서울YWCA는 1966년 국내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도입하고, 1970년대부터 근로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1977년 당시 유일한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인 근로여성회관을 건립해 도배사, 타일도장사, 세탁사 등 다양한 여성직업 개발과 훈련에 앞장섰다.



▲ '평화브릿지95'와 함께하는 아침식탁  
◀ '서울YWCA 후원의밤'에서 인사하는 조종남 회장

YWCA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소비자운동도 서울YWCA가 깃발을 들었다. 1964년 국내 최초의 소비자상담기구인 소비자정보센터를 열어 소비자보호운동을 주도했다. 전국으로 확산된 YWCA 소비자운동은 이후 아나바다운동, 환경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며 소비자환경운동과 공동체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100년을 향한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이 땅의 힘들고 소외된 여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서울YWCA는 95주년을 맞아 '깨어있는 여성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를 더 힘차게 이끌어간다. 올해 95주년 주제를 '평화'로 정하고 'Y 청년이 꿈꾸는 평화, W 여성이 꿈꾸는 평화, C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 A 회원이 꿈꾸는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정의·평화·생명의 세상을 만들어갈 '평화브릿지'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5월 23일 각계 명사 95명을 '평화의 브릿지'로 초청하는 '평화브릿지 95와 함께하는 서울YWCA 아침식탁'과 11월 2일 창립95주년 후원의 밤에서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평화브릿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즉 100주년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으로 서울YWCA는 △Y+ 사업 : Empowering

Girls 앙트러프러너십(창업가 정신) 교육을 통한 위기 청소년 역량강화 △W+ 사업 : Strengthening Women's Ability 소외된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원(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확장, 미안마 우먼스타트센터 건립) △S+ 사업 : Standing up for Social Justice, Peace and Life 글로벌 여성운동을 위한 제3세계 활동가, 서울YWCA 인턴십 지원 등을 펼친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YWCA는 올해 △Y 청년이 꿈꾸는 평화 : 청년 평화리더십 캠프, 청년 여성주의 학교,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W 여성이 꿈꾸는 평화 : YWCA 평화포럼, 평화순례와 함께하는 창립95주년 시민걷기축제, 북부지역 생명평화기행, 시민 젠더폭력을 말하다 토론회 △C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 : 평화 여성집회, 창립 95주년 기념예배 △A 회원이 꿈꾸는 평화 : 평화브릿지 95와 함께하는 서울YWCA 아침식탁, 후원의 밤, 도너월(감사벽) 설치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조종남 서울YWCA 회장은 12월 9일 창립95주년 기념예배에서 "5년 앞으로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며 다시금 처음을 떠올린다"면서 "서울YWCA가 이끌어 나갈 '여성이 만드는 세상'에 많은 분들이 평화브릿지가 돼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위한 서울YWCA의 활약이 기대된다.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현장

**경주지진 인지는 했으나**

경주지진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포항지진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GPS를 이용한 지각이동 관측 결과, 동일본 지진 이후 한반도에 작용하는 응력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경주지진의 주향이동단층 운동(단층 오른쪽 지반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수평운동)과 포항지진의 역단층 운동(한쪽 지반이 다른 쪽 지반을 타고 올라가는 수직운동)은 변화된 응력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쌓이고 축적된 에너지의 주기적인 방출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모 3.0 이하 미소지진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며 원인 규명도 어렵다. 피해를 수반한 대규모 지진은 에너지가 축적되는 지판의 경계부에서 발생하고, 환태평양조산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주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 구마모토와 한국 울산 해상에서 규모 7.3과 5.0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두 지진은 지각이 충돌하는 경계부에서 수백km 벗어난 지각의 내부

에서 일어났다. 당시 우리나라 주변으로 응력이 축적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경주지진 이전까지 지진 기록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고, 전문가들도 새로운 지진발생엔 회의적이었다.

**동해안 활성단층과 포항지진**

동해안을 따라 신생대 제3기 퇴적분지가 흩어져 있다. 지질학적으로 분지가 만들어질 때 화산작용과 단층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암석의 파쇄대(단층을 따라 암석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가 넓게 발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3기 퇴적층은 모래, 점토 등의 입자가 암석으로 고결되지 못한 상태로 내구성이 취약하다. 영덕에서 울산 해안까지 분포하는 퇴적분지들은 양산단층을 경계로 동쪽에 위치하며 포항지진이 발생한 북구 지역도 이에 해당한다. 경주지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주위 지반에 영향을 주었고 제3기 분지는 취약성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포항 무명단층은 대형 SOC사업과 한반도 동남부의

신기지각(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3기와 제4기를 일컫는 말)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분지의 내부단층 중 하나다. 단층은 암반이 파쇄되어 에너지가 방출되기 쉽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항지진은 경주지진의 영향과 축적된 응력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분지의 내부단층이 재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액상화 현상, 지역발전소 논란은 사실일까**

포항지진은 경주와 달리 액상화 현상이 관찰된다. 액상화는 지진으로 유효응력이 상실된 지반이 물을 배출하며 발생한다. 흙 입자 사이의 물이 배출되어 체적이 감소하면 연쇄적으로 지반이 붕괴한다. 대규모 붕괴까지 이어지는 않았으나 진앙을 중심으로 8km까지 하부토사가 지표로 유출되었고, 대규모 붕괴 전조현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다. 한반도 동남부에서 지진에너지는 계속 축적 중이고 진원은 분지 내부의 단층으로 옮겨가고 있다. 액상화 현상은 원전의 내구성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성능은 더욱 강화해야 하는 처지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인공적으로 유발된 지진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지진은 핵실험과 댐 건설로 인한 지진이 대표적이다. 다른 이유로 심부 지층에 물을 주입하면 지진이 발생하는데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미국 오클라호마 유전 등지에서 유발지진이 보고된 바 있다. 비화산 지역의 지열발전은 미소지진을 수반하는 공법이고, 포항지진 진앙에 인접한 거리에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장이 있어 포항지진 유발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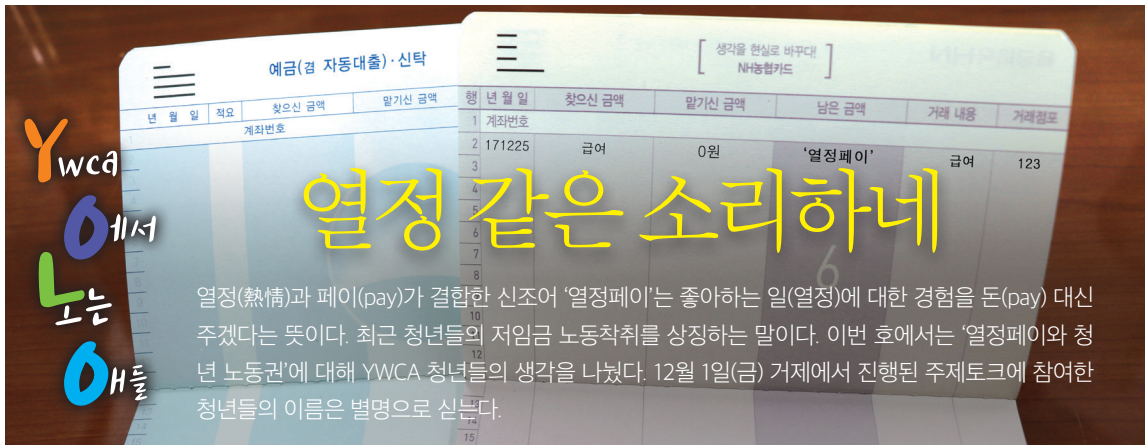
그러나 유발지진의 가설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진기록과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500만 톤 이상의 물이 주입되어야 하며 물주입이 중단된 후 지진이 감소하는 것에 반해 포항지진에서 관

찰되는 전진과 역진은 자연지진과 유사하다. 단층면에 물과 압력이 작용하여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면 장력과 정단층 운동이 발생하는데, 포항지진은 역단층 운동을 보인다. 수압파쇄의 압력과 지진은 무관하다는 미국 지질조사국 결과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월성원전 안전하지 않다**

경주, 포항지진 진앙에서 가까운 월성원전은 양산단층대에 속하며 제3기 퇴적분지에 있다. 퇴적분지는 지질학적 특성에 따르면 단단한 암석이 연속해서 분포할 수 없고, 이 지역은 지금까지 활성단층의 산출빈도가 가장 높다. 원전부지 적합성에 관한 안전기준은 계기지진, 역사지진, 활성단층을 고려하여 최대지진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역사지진을 제외한 변수의 입력 값이 증가했고 예상되는 최대지진의 규모도 이전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국내 원전은 재현빈도 1만 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고려해 0.3g의 내진성능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월성원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만 건의 지진이 일어난다. 지각 경계부의 지진은 지구물리학 패러다임인 판구조론을 적용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지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포항지진과 같이 지각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대부분 미해결로 남는다. 경주와 포항지진의 경험에서 한반도의 더 큰 규모의 지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지금 과학기술로는 15km 이내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최적 대응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전장치는 빨라진 정보문자와 정비된 지진계 외에는 없다. 지금은 지진방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왜 청춘은 아파야 해?**

**하늘** 얼마 전 제주 특성화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기사 봤어?  
**깜자** 지난해도 실습고교생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죽었잖아.  
**고곰** 청년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  
**뿌잉** '아프니까 청춘이다' 베스트셀러가 논란이 많았잖아. 왜 청춘이면 아파야 해?  
**고곰** 청년들을 굴러먹기 위해 포장한 책인 것 같아.  
**코코** 청년은 젊으니깐 좀 더 일하고 고생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어른들한테 있어.

**열정 같은 소리하네**

**뿌잉**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대행업체엔 돈 주면서 청년들에게 봉사시간을 줘.  
**위니** 청년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전문성도 없고 배우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지.  
**코코** 축제 같은 행사에 사전준비, 청소 같은 일로 돈 쓰는 게 가까운 거야. 그래서 청년들 뽑아서 일시키고 봉사시간 주고 땡.  
**하늘** '열정페이'는 기업들이나 하라 그래. 난 받은 만큼

일하는 '페이열정' 할래.

**아리** 열정페이 계산법 들어봤어? '열정있다, 재능있다=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래.  
**뿌잉** 청년취취대상 시상식이 열린 거 알아? 청년유니온이 2014년에 열었는데 이상봉 디자이너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어.  
**위니** 이상봉 디자인실은 11시간 근무하고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전수는 10만원, 인턴은 30만원을 급여로 준대.  
**깜자** 청년이면 열정이 많은 만큼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겪는데 사회가 실패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야.  
**고곰** 청년은 훈련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 당장 성숙한 결과만 원하는 것도 열정페이를 낳고 있지.  
**뿌잉** 어른세대의 청년 패러다임과 우리세대의 청년 패러다임의 해석도 달라.  
**깜자** 영화 '국제시장' 시절 어른들은 청년은 젊은 시절 결혼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땐 노동이 자본을 벌 수 있는 시대였고, 일한 만큼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었지.  
**뿌잉** 그런데 지금 청년세대는 달라. YWCA 안에서도 청년을 약자로 보고 있어. 청년을 지켜주는 운동을 해

야 하지 않느냐고. 패러다임이 전환됐는데 어른들은 이해하지 않으려 해.

**아리** YWCA에서도 "청년들아 와라.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청년들이 못 가면 "이것 봐라. 안 올 줄 알았다"고 하잖아.

**모두** ㅋㅋㅋ(웃음).

**하늘** 난 정말 불만이 있는데 청년관련 토론회나 행사를 하면서 왜 평일 오후 2시에 하느냐고? 어떻게 가? 어른들 편한 시간에 장소에 정해놓고 우리가 못 가면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하지.

**코코** 우리는 이런 토크처럼 힘뽀를 나누는 것도 청년활동이라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청년활동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

**2등 정규직**

**하늘** 요즘 애들 무급이라도 대기업 3개월 인턴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잖아.  
**깜자** 맞아. 근데 배우고 경험하러 온 청년들을 너무 무시해.  
**코코** 기업 입장에서 한명을 키워야겠다는 것보다 먹고 뺨은 비정규직처럼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뿌잉** 여성은행원을 '2등 정규직'이라고 한대. 지점장이나 VIP를 대접하는 직원은 대부분 남자가 많고 여자들은 창구를 맡아. 연봉 차이가 1-2천만원 정도 난대.  
**고곰** 거기다 여자는 남자보다 5개월 더 일해야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잖아.  
**뿌잉** 여자는 대학 성적과 스펙이 좋아도 입사부터 업무 배치, 승진까지 계속 차별을 받아. 명백한 성별 차별인 거지.  
**하늘** 이런 구조적 문제로 여자들이 '우리천장'을 뚫기 어려워.  
**위니** 능력 있으면 여자 CEO,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나올 수 있잖아.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열정페이? 페이열정!**



**아리** 그럴 경우가 터무니없이 적고, 남자와 똑같은 노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게 돼 있지.

**으쌔! 으쌔!**

**위니** 무엇보다 청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게 아쉬워.  
**하늘** 꿈과 미래가 없어져서 그래. 열심히 한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깜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무급인턴은 평등 이전에 생존의 문제거든.  
**뿌잉** 이번에 사망한 친구도 부모님이 아프셔서 야간근무를 계속 했다. 고등학생이 한 달에 250만원을 벌려던 오죽했겠냐고.  
**하늘** 지난해 지하철에서 죽은 친구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잖아.  
**코코** YWCA만큼은 실패도 청년의 권리로 생각해 지원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  
**고곰** YWCA에서도 청년들의 활동은 참여와 일을 구분했으면 좋겠어. 노동이 분명한 일은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청년을 응원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뿌잉** YWCA 같은 단체가 먼저 솔선해야 사회인식이 빨리 바뀌지.  
**위니**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이 곳으로 모이지 않을까?  
**하늘** 우리 모두 힘내자!



# 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김사랑  
안양YWCA '꿈이있는집' 입소가족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 95주년을 맞아 11월 30일(목)이화여고유관순기념관에서 희망나눔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공연의 나눔 석에 초대받은 안양YWCA '꿈이있는집' 입소가족 김사랑씨(익명)가 관람후기를 보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는 비공개 보호시설인 '꿈이있는집'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공연이 작은 힘이 되었길 바라며 후기를 전한다.

### 함께하고 서로 나누자

2017년 11월 30일. 아주 추운 날이었다. 사전정보 없이 연예인을 본다는 생각에 들떠 우리 공동체(가정폭력 상담소) 식구들은 깔깔 웃으며 유관순기념관으로 향했다. 여느 공연과는 다르게 환한 미소와 웃음으로 환대하는 사람들을 지나 콘서트장으로 들어갔다.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은 웬만한 공연장보다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2층으로 된 1500석이 이미 꽉 채워진 모습에 놀랐다. 자리에 앉자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이에게 읽어 주던 동화책 표지처럼 예쁜 색깔로 쓰인 'YANA' 글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You Are Not Alone'이라는 콘서트 주제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샌드아트 퍼포먼스는 나를 집중시켰다.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향해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고 전하는 메시지는 평소 여성폭력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내게 참 따뜻한 세상임을 느끼게 했다. 이어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부르는 판소리 '사랑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끌고 갈 미래로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사전공연이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주철환 PD가 사회자로 나왔다.

'앗, TV에서 봤던 유명한 PD가!!' 침착하고 편안한 음색으로 희망나눔콘서트의 뜻을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현재 펼치고 있는 캠페인 하나를 소개했다. '내!부!자!' "내부자 문화를 기부자 문화로 바꾸자"란 뜻이란다. 함께하고, 서로 나누자고 했다. 어릴 때부터 이름만 들어온 YWCA 발자취를 보며, 95주년 희망나눔콘서트를 연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가슴은 더 따뜻해졌다. YWCA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리라.

### 한편의 드라마

원숭이띠 친구들이 모여 만든 밴드 잔나비. 그들은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OST를 실제 엄마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했다. '얼마나 좋아'는 드라마에서 엄마들이 일탈의 기쁨을 만끽할 때나 영똥, 발랄한 모습이 나올 때 배경으로 사용된 곡이다. 나도 모르게 "탈탈랄라 탈탈라" 따라 불렀다. 정말 즐거워서 부르는 곡을 들으니 드라마 주인공들의 해맑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를



뮤지컬을 보는 듯한 공연을 펼친 카이(왼쪽)와 감동을 전한 샌드아트 공연.

기분대로 흔들게 했다.

뮤지컬 배우 카이는 무명 시절 주철환 PD와 인연이 되어 그가 부르면 어디든 가리라는 약속을 했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이 순간'을 들으며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강합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대고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언젠가 눈물 흘리며 들었던 그 곡은 일어날 힘을 솟구치게 했다.

마지막으로 예상하지 못한 린이 나왔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보다 더 순수하고 진솔해 보이는 그녀를 보며 마냥 좋았다. <해를 품은 달>의 OST를 들으며 애잔했던 주인공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린도 <디어 마이 프렌즈>의 주제곡 '바람에 머문다'를 불렀다. 극 중 작가인 고현정과 장애인이 된 조인성이 가슴 아픈 사랑을 할 때 나오던 이 노래는 내 마음을 더 애잔하게 했던 기억이 났다. 스크린엔 드라마의 장면이 지나갔다.


콘서트가 끝날 즈음 <디어 마이 프렌즈>를 다시 한번 본 듯한 착각이 들었다. YWCA에서 <디어 마이 프렌즈>를 2017년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대상으로 뽑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부장적 남성에게 눌러 살았던 삶에서의 해방, 우리가 지나치지 못할 가정폭력과 치매환자, 노인문제 등 드라마의 메시지는 외로워하지 말자는 내 삶을 칭찬하는 듯했다. 어머니 세대의 의리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성 연대에 초점을 맞춘

진솔한 표현이 모두의 공감을 자아낸 것 같다.

### '나눔석'의 의미

YWCA 희망나눔콘서트는 시민운동가, 청년활동가, 사회복지시설 활동가,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나눔석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한다.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갖고, 95년 동안 진심어린 사랑을 부어온 YWCA의 마음이었다. 봉사로 시작한 분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테다.

YWCA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피해여성을 위해, 아동을 위해, 장애인을 위해, 이주여성들을 위해 주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우리나라 복지가 빠르게 발전해오지 않았나 싶다. 콘서트가 끝나고 칼바람을 맞으며 덕수궁 돌담길을 다시 지나는 발걸음은 가볍고 흐뭇했다. 우리 사회가 그리 삭막하지 않다는 것, 개인주의자들만 모이는 세상이 아님에 감사하며 돌아갔다.

You Are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안심되고 위로가 된다.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고 왔던 콘서트는 얼마 후 맞이할 내 노후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나눔석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초청해준 YWCA에 감사함을 전한다. 

# 종속된 여성들을 일으키다



최순옥  
동해YWCA 명예회장

## 딸들의 사무실 기증과 무보수 봉사

동해YWCA 30주년을 맞으며 설립 시절을 회상해 본다. 1985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어느 날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여성대회를 알리는 공문 한 장이 날아왔다. “일어나라! 깨어라! 찬양하라!” 주제가 눈에 번쩍 들어왔다. 가슴이 요동쳤다. 그 시절 많은 여성들이 결혼으로 꿈을 포기한 채 시대에 종속되어 살았듯이 나 역시 홀시어머니의 극한 아집과 편견에 짓눌려 체념으로 지쳐있었다. “일어나라! 깨어라! 찬양하라!”는 문구가 귓전에 맴돌며 나를 다그쳤다.

들뜬 마음으로 참가를 결심하고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기대와 설렘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튿날 대회장에 도착했을 땐 장상 박사의 주제강연 시간이었다. “잠자는 여성이여 일어나라, 깨어라, 입을 열어라!” 그녀의 외침이 가슴에 박혔다. 나를 위로하며 돌아서는 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 박영숙 한국YWCA연합회 총무님이었다. YWCA를 세심히 설명하며 안내장과 서적 몇 권을 건네주고 내 주소를 적어갔

다. 그 후부터 연합회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이진용 선생님의 방문과 연락이 이어졌다. 설득 강도가 높아지면서 YWCA 자료를 탐독하고 목적문을 익히며 사명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2년여 준비를 거친 끝에 1987년 4월 20일, 32명의 회원으로 동해YWCA 창립이 선포되고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다. 첫 프로그램은 김숙희 이화여대 교수의 의식개혁 강의였다. 시대 아픔 속에 종속적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고 체념하며 사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맨손이었다. 사방을 돌아보며 노력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다. 고민 끝에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둘째 딸을 협박에 가깝게 설득하여 사무실을 기증받았다. 기쁨도 잠시 직원 채용의 고민이 생겼다. 휴학 중인 셋째 딸에게 무보수 직원으로 일해달라며 설득했다. 확답을 받고 모두 열싸안고 기뻐했다. 가족의 도움으로 ‘기독교여성청년회’ 간판을 올렸다. 동해에서 서울까지 연합회를 옆집처럼 드나들며 YWCA를 배워나갔다. 각종 회의와 교육을 가리지 않고 참석하며,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하며 안목을 넓혔다.

## 참으로 무거웠던 ‘건축위원장’

여러 프로그램을 열고 사무실을 개방하여 학습장소와 쉼터로 활용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활기찬 활동이면에 재정적자와 분야별 지도력을 세우지 못한 불편함이 커져갔다.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와 교육을 이사, 위원 등으로 나뉘할 수 없기에 회장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감당하느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이들의 원성이 귀에 들렸고 거덜난 가게부도 눈에 들어왔다. 심한 피로감이 겹쳐들며



1987년 4월 20일 동해YWCA 창립이 선포되고 창립총회가 열렸다.

쉬고 싶었지만, 이진용 선생님의 집요한 권면과 회원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일어섰다.

기도하며 전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보수 강의를 약속받았고, 목말라하는 동해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다. 취미교양을 위한 꽃꽂이, 에어로빅, 사진, 서예, 미술, 일본어, 노래교실을 개설했으며 직업을 위한 도배사 교육도 실시했다.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해 시민과 YWCA가 화합해 나갔고, 건전놀이 문화 보급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과 소비자교발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선도와 소비문화 정착에도 힘을 다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재정은 아직도 빨간 신호등이었다. 온 나라가 경제불황으로 살기 어려운 때라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다. 모두 함께 기도하던 중 2007년 공매로 현 회관건물을 낙찰받게 되었으나 기뻐할 겨를도 없이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잦은 회의와 토론에 지친 이사들이 하나 둘 떠나갔다. 남은 회원 몇 명이 짐을 나눠지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당시 건축위원장의 무게를 건디기 힘들어 참 많이 울었다.

많은 부채를 안고 2008년 4월 개관예배를 드리고 입주하여 발한동에 동해YWCA 회관을 세우게 되었다.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활동이 다양해지며 YWCA 가족이 다시 늘어갔다. 동해YWCA 30년을 돌아보면서 어렵던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YWCA와 동행하게 하신 하나

## 동해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연합회, 회원YWCA, 지역인사들이 30주년 기념식에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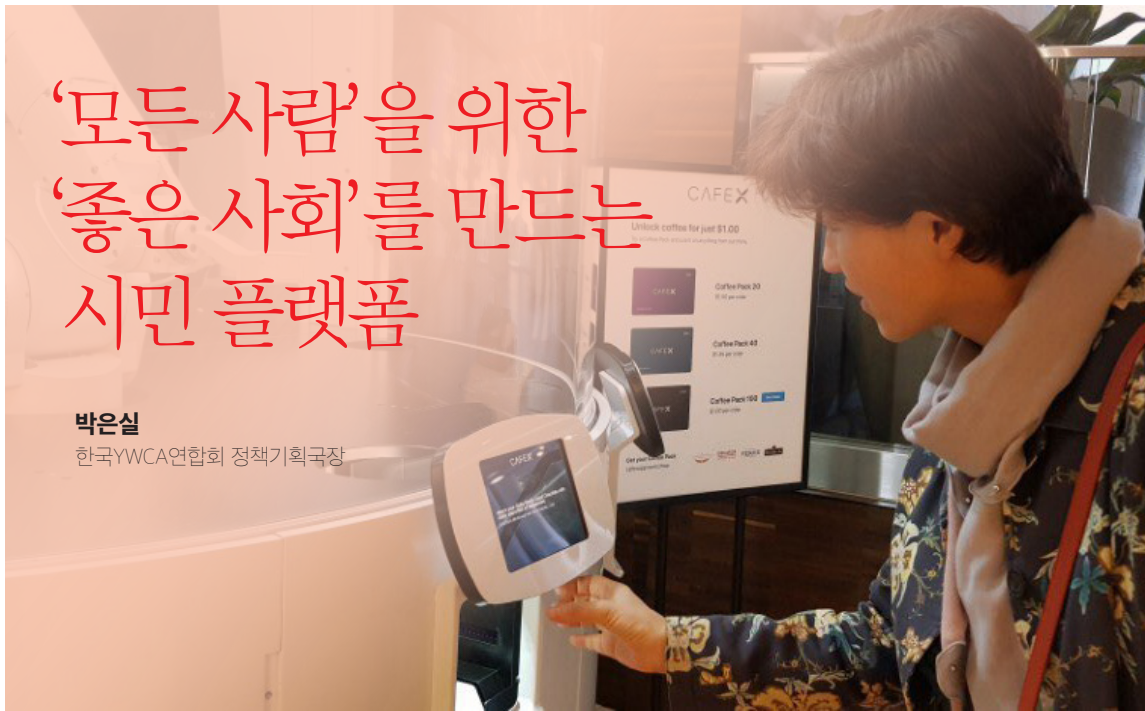
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함에도 곳곳하게 함께한 이사와 회원들, YWCA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 동해YWCA 30주년 기념식 “동역자와 지역사회에 감사”

동해YWCA는 11월 15일(수) 창립30주년을 맞아 동해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창립30주년 기념감사예배를 열었다.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원영희 부회장, 심규언 동해시장, 정성모 시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기념영상을 시작으로 YWCA 상징물 입장이 이어졌다.

구애심 동해YWCA 회장은 기념사에서 “1000여명의 회원과 이사,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실무활동가의 헌신, 그리고 시민사회의 수많은 동역자와 신뢰를 보내준 지역사회가 있었기에 동해YWCA 30년이 가능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내외빈 축사에 이어 문재황 동해YWCA 지도목사의 설교 ‘루디아를 통해’와 비전선언문 낭독, 박한나 대학·청년Y 회원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최순옥 명예회장은 30년 공로패를, 임철자·석순옥 명예이사는 30년 자원봉사상을, 동해加里교회·동해장로교회·누가이비인후과·금강약국·홍행자·이차임·이효용은 감사패를, 조순자 돌봄회원은 30년 회원상을 각각 받았다.



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주관 2017년도 제3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과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연구'를 주제로 11월 7일(화)부터 15일(수)까지 7박 9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이고 등에서 진행됐다.

#### 4차 산업혁명, 중요한 것은 '가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던 시대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왔던 YWCA가 그런 것처럼 나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한다. 사전 연수에서 혁신, 창의, 융합 세 단어를 과제로 받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와 현실을 마주하며 내 고민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로 이름 지었다. 그리고 이 시민플랫폼을 '밸런스드(VaLearNCD) 포(for) 휴먼(Human)'이라고 불렀다.

'균형 잡힌(Balanced)'으로도 들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치와 기술, 인간과 로봇, 보안과 공유, 무제한과 제한 등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생각할 수 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기기 등에 기반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서 기업과 연구기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로움 안에서 수없이 시도한 과정

과 결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팀워크'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가치'였다.

농가에서 온 신선한 재료를 Cafe-X의 로봇 바리스타가 사용하며 지역 농민과 상생·시민 건강의 가치를, 실리콘밸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SAP(기업용소프트웨어 회사)는 기업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을 통해 협력의 가치를, 테슬라는 무인 전기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고 인간 실수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인다는 생명보호 가치와 함께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무료제공하는 공유가치를 강조했다.

스탠포드의 자동차연구소와 디자인스쿨은 창의적인 재를 기른다는 인간개발의 가치를, 구글이 업무시간 외 20%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허용한 제도는 삶의 질과 사회기여를 높인다는 가치를,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

를 통해 세계 재난과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안전가치를, 켈컴은 위성을 통해 세계 오지까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가치들은 YWCA 같은 시민사회가 추구했던 가치의 종합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군용 로봇에 인간살상 기능을 허용할 것인가? 일반 사업주가 3D프린터로 만든 인공장기를 판매한다면 허용할 것인가? 우세한 2세를 낳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전자정보 활용과 조작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기술혁명으로 인한 생활변화는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주신 뜻대로 어떻게 다른 피조물들과 가치롭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는가, 뒤따라가고 있는가. 그 전에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VaL : Social Value for Leading Change (미래지향적 사회변화의 방향성, 모두를 위한 평등가치, 윤리토론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이다. 기술혁명 속도에 비해 가치, 규제와 규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과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끄는 가치, 윤리, 도덕에 대한 진지한 공론의 장을 여는데 있다. 특히 '불평등의 심화와 일상화'로 지적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의 의미와 실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둘째로 'Learn : Social Learning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사회)'다. 디지털 사회혁신 분야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학습하고, 정책을 입안해 제품과 공간 등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마

다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클러스터 공간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소통·시정 담당부서를 상근시키고, 공동 학습공간을 마련해 공무원은 시민제안을 이해할 뿐 아니라 시민이 시정을 배우고 시민참여형 정책을 적용해보는 리빙랩 같은 실험실도 운영할 수 있다. 회원 YWCA 회관이나 부속시설 공간, 회원YWCA 홈페이지에서 온·오프라인 토론과 학습이 활발해져야 한다.

셋째로 'Networking : Social Networking with Diversity and Teamwork(다양성 존중을 통한 네트워킹)'이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개방·공유·참여·협력이 화두지만,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성과 사회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성 지수'를 개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YWCA도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더 적극 실행해야 한다.

넷째로 'CD : Social Culture and Innovation from Democracy(체화된 민주주의 통한 사회혁신과 문화)'다. 기술로 연결·공유·참여·협력하는 주체인 시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몸에 배어야 기술과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적합하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적극 논의해야 하고, 발전된 민주주의를 체득할 제도·사업·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높이는 민관 활동이 많아져야 한다.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할수록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사회'가 되도록 사회변화를 이루려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YWCA 열망을 더욱 포기할 수 없다. '밸런스드(VaLearNCD) 포(for) 휴먼(Human)'의 가치를 열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YWCA 현장으로 간다. 오늘도 인형을 꺼안고 잠자는 아이들을 본다. 편리와 기술이 아이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죄악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번 호에서는 실무간사로 출발해 위원, 부회장을 거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YWCA연합회 회장을 지낸 차경애 증경회장을 만났다. 11월 13일(월) 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는 원영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2015년 처음 시작한 <원로에게 듣는다>는 2018년부터 새 코너로 단장할 예정이다.

**대담**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글·사진** 신미희 문윤희 손지수 홍보출판팀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 약력

1967	대한YWCA연합회 홍보출판부 간사
1997	대한YWCA연합회 감사패 수상
1998	YWCA 전국대회 30년 봉사상
2000~2011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2002~2003	대한YWCA연합회 복지사업위원회 위원장
2003~2006	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
2005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제10회 여성주간)
2006~2011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2006~2016	YWCA복지사업단 이사
2012~2015	한국YWCA연합회 회장
현재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 실무간사 출신 첫 YWCA 회장

### YWCA와 첫 인연이 어떻게 되시지요?

1967년 연합회 홍보출판부 간사로 왔어요. 당시까지 홍보를 전공한 실무자가 없었어요. 창립 45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전공자를 쓰자고 얘기가 됐나 봐요. 학교로 추천 요청이 왔는데, 학과장님이 제게 가보라고 하셨어요. 마침 감리교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기독교세계>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YWCA를 출입하고 있던 터라 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지요.(웃음)

### 실무간사 출신으로 첫 회장이 되었는데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의 역할에 변화를 느끼셨는가요?

YWCA는 구분이 잘 되어 있는 바람직한 단체예요. 특히 위원회 활동이 참 좋아요. 자원봉사자가 아이디어를 내면 실무자는 자원봉사자를 섬기면서 자기 할 일을 잘 해내요. 서로의 역할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아무래도 실무자로부터 섬김을 받았잖아요? 저는 실무자 출신이기 때문에 섬김이 몸에 배여서 실무자들이 그러면 거북해요.(웃음) 자원봉사자인 지금도 섬김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해요.

### 가장 역점을 두고 펼쳤던 일은?

여성직업훈련이죠. 1966년 서울YWCA가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도입하면서 집에서 일하던 분들을 출퇴근하는 직업인으로 바꿨지요. 당시엔 여성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이 별로 없었어요. YWCA에서 여성들을 잘 훈련시키니깐 노동부가 ‘일하는 여성의

집’을 YWCA에 위탁해서 서울, 광주, 부산에서 시작했죠. 지금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었는데 전국 52개 중 27개를 YWCA가 운영하고 있어요.

### 가장 잊지 못한 분을 꼽는다면?

박에스더 선생님은 세계YWCA에서 파견한 고문이었는데도 완전 실무자였어요. 행사할 때 의자와 책상을 직접 놓으셨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지금의 한국YWCA는 선생님 덕입니다. 옛날엔 YWCA가 교회 전도부인회 같은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조직체로서 YWCA를 세웠죠. 회관을 구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문태임 회장님도 잊지 못하죠. 개성인데 음식 솜씨가 좋아서 댁에 가면 보쌈김치를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나요. 복날에 삼계탕을 만들어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 대접하셨어요. 선생님을 닮아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죠(웃음).

### 여성직업훈련과 사회복지 역점

### 회장 재임시 탈핵캠페인에 매번 참석하셨는데요?

회장이니깐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YWCA에 와서 배운 게 많아요. 대학생 때 여성운동, 사회운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YWCA에 와서 다 안 거예요. 탈핵도 YWCA에 와서 알았죠. YWCA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 YWCA 지도자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섬김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말이지만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함께 가자.” 그 말씀이 요새 너무 와 닿아요.




차경애 증경회장(왼쪽)이 원영희 부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 YWCA 출신의 다양한 진출을 어떻게 보시시지요?

사회운동은 다양한 관심이 필요해요. 정치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YWCA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돌봄, 성평등에서 법제화 과제가 많은데 우리 쪽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쉬울 거예요. 과거 정치는 직업정치인들이 주도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생활정치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시민들의 생활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양질의 사람들을 보내려고 해요. 예전 시각으로 노파심을 갖고 정치 자체를 염려하는데 구분이 필요하고요.

### YWCA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 본인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귀중해요. 다음으로는 매일 정오에 평화통일을 위해 각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선천, 함흥, 원산, 안주, 평양 5개의 YWCA가 있었잖아요. 북한 YWCA를 다시 회복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청년, 우리나라와 YWCA의 미래예요. 대학·청년Y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 시기가 정의감이 가장 불타는 때 아니에요? 대학·청년Y 운동으로 만든 리더십이 우리 사회 속 다양한 역할과 연결이 되어야 해요. 

#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 ‘로마서 8:37’이어야만 했던 이유

김지혜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연구원



영화 <로마서 8:37>은 번뇌하는 젊은 전도사 기섭의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 한국교회 분쟁을 다룬 영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비기독교인은 물론 신실한 기독교인조차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 후 분노 내지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럴 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비리, 야합, 그리고 회유의 과정이 계속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목회자의 성추문, 미궁에 빠진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주요 교단 신학교의 내분, 교회리더십 세습 등 지리한 싸움이 현실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영화라도 속 시원한 결말이면 좋을 텐데 힘이 빠진다. 절로 드는 생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영화는 중요한 두 축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두루 다룬다. 신·구 리더십의 갈등, 그 과정에서 성추문을 덮으려는 이들과 파헤치려는 이들의 갈등. 전도사 ‘기섭’은 자신의 형이자 우상인 부순교회 담임목사 ‘요섭’을 돕기로 한다. 원로목사와의 분쟁 중 ‘요섭’의 성추문 전적이 드러나고, ‘기섭’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진실을 파헤친다.

### <로마서 8:37>이 재현하는 한국교회

영화는 사회 문제들을 다루며 세상에 화두와 담론을 던진다. 이때 재현되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임성빈 문화선교연구원장(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은 60~70년대 영화에서 기독교는 사회를 계몽하는 역할로 등장하며, 80년대는 기독교를 다룬 영화 속에서 진리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현실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90년대는 한국교회가 신성성을 잃은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2000년대 이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귀감이 되는 인물 중심의 다큐멘터리가 일색인 요즘 한국 기독교영화 중 <로마서 8:37>은 오랜만에 등장한 극영화다. 분쟁 중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힘든 취재 끝에 내부 다툼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다양한 상징

을 통해 이미지화했다. 또한 감독 나름대로 구원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던 점 등은 영화적인 면에서 진일보한 기독교영화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내용적인 면에서 평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 평화뿐인 ‘종교’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한다. 목회자의 지나친 자기 확신, 성도의 맹목적 믿음, 그리고 야합의 과정에서 교회의 두 가지 심각한 권력 불균형 상태가 드러난다. 바로 비목회자와 목회자, 여성과 남성의 계급화다. 영화 속에서는 대개 남성, 목회자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 그밖에는 소위 ‘명예남성’들을 포함한 목회자 측근이나 목회자 후보생인 전도사에게만 발언 기회가 허용될 뿐이다. 특히 여성 이슈는 영화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그녀들은 도구화되면서 죽거나 잊히거나 사라지기 일쑤다. 피해자의 증언은 공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 정도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자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아프다.

### 영화가 던지는 신앙적 화두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섭’의 회개기도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 내내 참았던 분노와 무기력감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보수적인 신앙인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수록 헛헛함과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뼈아픈 고통을 겪어가면서라도 도려내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지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삽입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승리하실 터이니 “모두 죄인”인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저 기도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게 만들기 때문이다.

영화는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하지만 결론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영성으로 축소시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감독의 의도를 이 지점에서 읽을 수 있다. <로마서 8:37>이 사회(교회) 고발성 영화가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기섭(오른쪽)은 형이자 원로목사에 맞서 싸우는 스타목사인 요섭(왼쪽)을 돕기 위해 부순교회로 들어가지만 요섭의 성추문 전적이 드러나면서 그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내부의 비리나 권력 다툼들은 물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는 표면일 뿐이다. 진정 바라봐야 하는 건 그런 부조리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군지 들여다보자는 거다.”(씨네21) 그러나 신연식 감독의 변에도 영화를 보고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묻게 된다.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죽은 고양이’(로 상징되는 교회) 앞에서 했던 ‘기섭’의 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로부터 출발한다. 무너지는 한국교회,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공동체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희망은 바로 ‘기섭’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럼에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야합과 이세벨에 맞서 놀라운 능력을 보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셔서 중국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의 제목이 <로마서 8장 37절>이어야만 했던 이유다. 

성탄예배



2017 성탄예배가 12월 1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허락하소서'를 주제로 열렸다. 촛불점화를 시작으로 플루트 연주와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내 영혼의 유일한 바람'이 이어졌다. 이명혜 회장이 성탄 축하인사를 전하고 문권희 실행위원이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시를 낭독했다. (자세한 내용은 5-7쪽에)

2017 김필레리더십캠프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김필레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17 김필레리더십캠프가 12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연합회와 버들캠장에서 열렸다. 정신여중 학생 26명이 참여해 동문이자 교사였던 YWCA 설립자 김필레 선생의 기독교정신과 봉사정신을 배웠다. 정신여학교 구교사가 있는 연동교회 방문,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의 글로벌여성리더십 특강, 청소년금융교육 씽크머니 체험학

습을 했다. 12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는 정신여고 학생 24명이 참여하는 김필레리더십캠프가 열렸다.

직업훈련 실무자 2차 워크숍



회원YWCA 직업훈련과 알선담당 실무자 35여명이 참여한 2017 직업훈련담당 실무자 2차 워크숍이 11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연합회에서 열렸다. NCS도입과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대응, NCS기반 훈련과정 편성의 이해와 적용, 4차 산업혁명과 직업훈련 변화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YWCA 어린이집 중견교사 연수



2017년 전국 YWCA 어린이집 중견교사 연수가 11월 30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연합회에서 열렸다. 16개 YWCA 어린이집 중견교사 28명이 참석해 임희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의 기독교적 생태교육 이해와 실천방향 강의를 듣고, YWCA 5

대 운동정책 이해와 95주년 희망나눔콘서트 관람을 했다.

YWCA 활동가들 '소비자의 날' 포상



YWCA 활동가들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1일(금)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았다. 이희경 세종YWCA 사무총장은 대통령상을, 남경자 대전YWCA 위원은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청년기자단 3기 수료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청년기자단 3기가 6개월간 활동을 마쳤다. 7명의 청년기자단은 12월 9일(토) 연합회에서 마지막 정기모임을 열고, 신미희 연합회 홍보출판부장의 글쓰기 강의와 콘텐츠 평가를 진행했다. 백혜진 연합회 홍보출판위원장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민주 청년기자가 우수기자상을 받았다.

기부YWCA 1922 장학금

광주YWCA 22만원, 세종YWCA 3만원, 김미자 1만원, 김형 25만원, 박혜경(Kay Chang) 1백만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10. 1~11.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11. 1 ~ 11. 30)	강승아, 고세영, 그레린, 곡지영, 구정혜, 국유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사바,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화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숙,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상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솔, 배한울, 백정미, 백노란, 백혜진, 서은미, 손사정, 손정민, 송록희, 신명자, 산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정신,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정,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정분, 윤혜시, 이남희, 이명혜, 이은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희, 이은영,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진희, 이진진, 이현자, 이희숙, 이희정, 임정숙, 임진영, 임향록,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정윤우, 전바자, 전정미, 정경란, 정지유, 정태걸,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시, 최사나, 최지연, 최현선, 허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한희경, 홍기자, 홍현정, 홍현희, 황홍백	1,858,000
개인기부	구분준, 오경선, 이진용, 최혜실	114,180
협력교회	기본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구 성광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선교회	260,000
기관, 단체	마포구청 기독교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니다스, 르뱅(명동성당점), 알파문구, 에세레(젤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281,580
합계		2,513,760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고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고양YWCA는 11월 15일(수) 고양시청 컨퍼런스홀에서 여성정책전문가, 공무원, 고양YWCA 시민모니터링단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이 처음 시도된 고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수원여성문화공간 '휴' 박재규 센터장이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가 고양시 성인지예산사업 과제,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이 안산시 성인지예산사업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이사·위원·실무자 정동진 워크숍



남양주YWCA는 11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강원도 정동진에서 하반기 이사·위원·실무자 워크숍을 열었다. 강릉YWCA와 강릉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정회원Y의 활동을 듣고 회원증모 등 사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어 영화 '어폴로지'

를 관람하고 여성인권을 돌아보았으며 마지막 날은 바다열차 여행으로 단합을 다졌다.

수원YWCA

정지영 주임

인문학콘서트 '내 삶의 인생나침반'



수원YWCA는 11월 14일(화) 벨류하이엔드호텔에서 수원시민과 수원YWCA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문학콘서트를 열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내 삶의 인생나침반'을 주제로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삶의 방식과 영향을 알아봤다. 11월 21일(화)에는 제도로 보는 성평등과 현장에서 만나는 젠더를 주제로 '소소한 젠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성남YWCA

이보경 주임

성남시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간담회

성남YWCA는 11월 10일(금) 성남시청 시의회 회의실에서 성남YWCA 모니터링단, 공무원,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공공시설 중 공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공무원들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개선사항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판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우수상을 수여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토론회

안산YWCA는 11월 24일(금) 안산글로벌문화센터에서 '평가를 넘어 점검으로'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시작된 안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현장방문 시민모



니터링은 안산시 행정에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된 사업과 2017년 지속 사업에 시민이 성별요구를 평가하는 현장 모니터링이다.

인천YWCA

오수진 간사

인천YWCA 회원대회



11월 18일(토) 영화관광명영고등학교 강당에서 '양성평등-대중가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자화상'을 주제로 회원대회를 열었다. 인천YWCA 회원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영미 성공회대 교수의 강의와 조별 레크리에이션,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회원들간 단합과 함께 양성평등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평택YWCA

정혜근 간사

평택고등학교 '애들아, 밥먹자'



평택YWCA는 10월 25일(수) 청소년아침식탁캠페인

'애들아, 밥먹자'를 진행했다. 평택고등학교 9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택YWCA 이사와 돌봄 회원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과 음료를 나눠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침식사 여부를 묻는 설문도 벌였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큰장날 개최



거제YWCA는 11월 18일(토)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큰장날을 열었다. 진주대봉감, 창원단감, 문경사과 등 산지직송 과일과 먹거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생활리에 마쳤다. 청소년들도 직접 물품을 준비해 공유경제, 재활용 시장문화를 배우면서 일과 돈의 소중함을 경험했다.

김해YWCA

권중숙 팀장

홀로어르신 위한 일일찾집



김해YWCA는 11월 30일(목) 회관에서 홀로어르신 겨울나기 내복 지원사업으로 일일찾집을 열었다. 회원과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EM제품, 떡국, 참기름 등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김해시기독교연합회를 통해 홀로어르신에게 내의 100여벌을 전달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Y와 소통하고 동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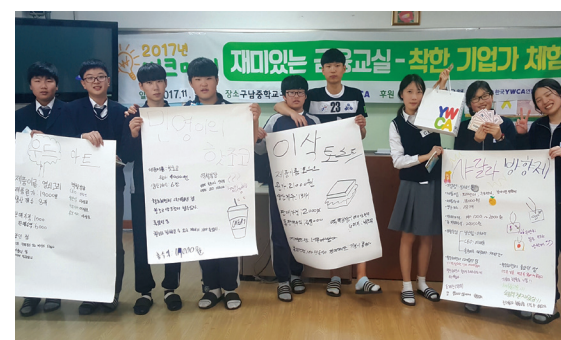


대구YWCA는 11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Y와 소통하고 동행하라'를 주제로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 글자를 딴 '달빛동행'으로 동서화합을 위해 광주YWCA 95주년 창립예배에 참석하고故 조아라 선생 기념관을 탐방했다. 권연숙 대구YWCA 이사의 '마·미·눈'(마음으로 미소로 눈빛으로) 강의와 담양 죽녹원 탐방, 유기농채소 체험학습도 진행했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착한 기업가 체험



마산YWCA는 11월 9일(목) 구남중학교 구산분교장 전교생 9명과 함께 찾아가는 씽크머니 일곱 번째 활동으로 '재미있는 금융교실-착한 기업가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우드아트, 방향제 기업이나 빵가게, 카페 운영자가 되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며 경제원리를 체험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사랑의 떡국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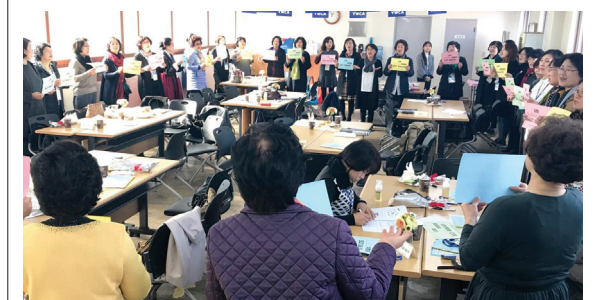


사천YWCA는 11월 23일(목) 삼천포 농협하나로뷔페에서 사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시의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배려계층 아동과 여성을 후원하기 위한 '사랑의 떡국데이'를 열었다. 이날 수익금은 사천YWCA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아동들의 내의와 건강가정상담소 임시보호시설 여성들의 이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신입위원 초대의 날



울산YWCA는 11월 13일(월) 이사, 위원, 신입위원, 실무활동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활동가 육성을 위한 2017 신입위원 초대의 날을 열었다. 우진숙 프로그램부 위원장의 축시로 시작된 행사는 서정순 회장의 울산YWCA 소개,곽재숙 증경회장의 리더십 강의, 강경희 청소년대학부 위원장의 천연화장품 만들기, 신입위원들의 동행서약으로 진행됐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일일카페 민들레



양산YWCA는 11월 28일(화) 온누리교회 엘림카페에서 ‘일일카페 민들레’를 열었다.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지원과 북한어린이돕기, 지역운동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공연과 상품판매, 먹거리가 준비됐다. 특히 재능기부로 펼쳐진 오카리나 연주, 마술공연, 가야금 연주는 큰 호응을 얻었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동부 중견활동가 ‘초심, 열심, 뒷심’



Y아카데미 동부센터는 11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통영 세자트라숲에서 중견활동가 네트워크인 ‘숲과 바다에서 다시 초심, 열심, 뒷심’을 진행했다. 김해·대구·마산·안동·울산·진주·진해·창원·통영 9개 YWCA 실무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상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불확실성 시대에 비영리로 살아가는 법’을, 신미희 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이 ‘YWCA 활동 효과적으로 알리기’를 각각 강의했다.

진해YWCA

김미영 팀장

생활점프 종이접기

진해YWCA는 11월 14일(화) 창원시 여성회관 진해관에



서 결혼이민자 전업주부 17명을 대상으로 생활점프 종이접기를 진행했다. 창원시 다문화지원사업인 생활점프 종이접기는 이주여성들이 종이접기를 배워 자녀들과 함께 만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방문걸이 장식과 딱지거울 등을 만들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제2회 회원대회



창원YWCA는 11월 28일(화) 창원시 여성회관 창원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원대회를 열었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4대 중점운동인 탈핵생명, 성평등, 청(소)년, 평화통일을 주제로 조를 구성하여 운동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단체게임으로 소통하고 대회 중간마다 퀴즈로 YWCA 활동을 재미있게 알렸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김장철 물가조사

포항YWCA는 11월 22일(수) 죽도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7곳을 중심으로 김장철 물가를 조사했다.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김장재료를 구입하고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지역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사를



에서 올해는 배추, 무, 대파 등 김장 채소류 생산이 늘어 지난해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제29회 회원대회



강릉YWCA는 11월 9일(목) 경포호수 잔디공원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회원대회를 열었다. 예배, 회원증보 현황보고, 조별 미션활동으로 회원들이 단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새일맘 페스티벌



동해YWCA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월 28일(화) 대강당에서 새일맘 페스티벌을 열었다. 여성구직자 100여명이 참석해 ‘찾아가는 취업창구’ 버스 지원으로 무료 지문적성 검사를 진행했다. 캘리그라피 체험활동, 퍼스널컬러 찾기, 이미지메이킹 특강,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구직여성들이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대학·청년 ‘찾아가는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서울YWCA 대학·청년동아리 피스톡톡은 11월 4일(토), 11일(토) 강남청소년수련관과 성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찾아가는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대학·청년 회원들은 ‘북한을 모르는데 통일? 북한은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를 주제로 북한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며 평화통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실무자 연수



속초YWCA는 11월 2일(목)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실무자 11명이 참여해 성원기 삼척대학교 교수의 탈핵강의를 시작으로 삼척·동해 일대를 돌아보고, 유리공예 체험 등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탈핵강의는 YWCA 탈핵운동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탈핵캠페인



춘천YWCA는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달 탈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9일(화)과 9월 19일(화)은 춘천 명동입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10월 24일(화)은 명동 입구, 11월 21일(화)에는 춘천 지하상가에서 핵발전소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사랑의 김장 나눔



광양YWCA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1월 22일(수) 광양YWCA 무료급식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다. 광양YWCA 실무자, 포스코 광양 제철소 직원 70여명과 광양YWCA 회원 50여명은 김치 2,500 포기를 담가 광양시 배려계층과 다문화가정 등 560여 세대에 전달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연극 '티 없는 아름다움, 뷰티풀 조아라'

광주YWCA는 창립 95주년 기념으로 11월 2일(목)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연극 '티 없는 아름다움, 뷰티풀 조아라'



를 각각 상연했다.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해 '망주의 어머니'로 불리는 조아라 선생의 일화를 그린 연극이다. 조아라 선생이 여성운동가로 활동한 시기를 중심으로 그렸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연말행사



남원YWCA는 11월 23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연말행사를 열었다. 이날 이주여성 9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을 나눴다. 남원YWCA는 이보다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무료강좌를 열고, 사회교류와 친목을 위한 자조모임도 진행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돌봄노동여성 소통공간 '플랫폼' 오픈



목포YWCA는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지원으로 회관 2층 상담실을 돌봄노동여성 소통공간인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고 11월 17일(금) 오픈했다. 목포YWCA 이사, 목포시의회와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돌봄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플랫폼 소개와 경과보고, 테이블 커팅을 진행했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이사 연수회



순천YWCA는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를 주제로 이사 연수회를 열었다.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30여명이 참여해 최선에 목포여성의전화 대표의 성인지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보성 한국차박물관 견학, 보성 강골마을과 득량역 추억의 거리 방문 등을 진행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우리 지금, 안전한가요?



여수YWCA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성인지 관점의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사업인 '우리 지금, 안전한가요?'를 진행했다. 12월 4일(월) 여수YWCA 강당에서 공중화장실 52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회원한마당

전주YWCA는 11월 29일(수)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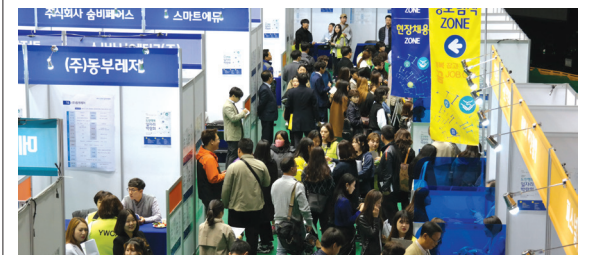


서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2017 공개특강 및 회원 한마당'을 열었다. 전주YWCA 어린이집 아동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황금명륜 같이교육연수원 대표의 '새로운 페미니즘과 히포시' 특강, 특별공연 등이 진행됐다.

제주YWCA

김수열 간사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제주YWCA는 11월 1일(수) 제주한라체육관에서 '2017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열었다. 제주YWCA 청년일자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으로 계층과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00여명의 도민과 61개 우수 구인업체, 18개 취업유관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살고 싶은 마을 꿈꾸생활 모니터링 공유콘서트



11월 27일(월) MG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지금·여·기(지)

## 회원YWCA 소식 12월

금보다 더 멋진 삶을 위한 여성들의 기지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논산YWCA 마을 꼼꼼생활 모니터링단 여성들이 배우고 성장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회원, 모니터링단, 시민 130여명이 참여했다.

### 대전YWCA

이진주 간사

#### 회원참여의 날 '건강한 치아관리'



대전YWCA는 11월 24일(금) 강당에서 신동진 대전이즈치과 원장을 초청해 건강한 치아관리를 주제로 '회원참여의 날' 건강강좌를 열었다. 참석회원 30여명에게 치아관리 상식과 일상관리법, 치과 치료정보를 제공하고 틀니관리, 임플란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세종YWCA

김영옥 간사

#### 평생회원 만남의 날



세종YWCA는 11월 21일(화) 조치원 성결교회 김동훈홀에서 'November Remember' 평생회원 만남의 날을 열었다. 평생회원 60여명이 참여해 1부 세종YWCA와 함께하는 리더십 콘서트와 2부 세종YWCA와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으로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 제천YWCA

이미경 팀장

#### 사랑의 김장나누기

제천YWCA가 운영하는 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는 11월 8일(수)부터 3일간 효나눔 봉사대 어르신 20여명과 함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



어 50여가구에 사랑의 김치를 전달했다.

### 천안YWCA

정상란 팀장

####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드림콘서트



천안YWCA는 11월 30일(목)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에서 지역사회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드림콘서트를 열었다. 회원과 후원자를 포함한 관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시 청소년소녀합창단, 청년 음악가들의 합창, 국악, 팝페라, 성악, 현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 청주YWCA

김광식 간사

#### 다큐멘터리 '그 여자의 예쁜 것' 제작



청주YWCA는 11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청주 에듀피아 상영관에서 '한국여성감독의 약진-지금 여기, 여성'을 주제로 충북여성문화제를 열었다. 개막작으로 고희영 감독의 '물숨'을 비롯해 정가영 감독의 '비치온 더비치' 등 9편이 상영되고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특히 청주YWCA가 제작한 박인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 여자의 예쁜 것'이 폐막작으로 선보였다.

## 2017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 ■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제목	필자	월	쪽
가족법 개정 기반 다진 제3대 회장 김갑순		1-2	
'나눔장신' 실천한 제3대 회장 문태임		3	
YWCA 70년의 기록 '회보'부터 '월간'까지		4	
여성을 위한 보육운동의 선구자 YWCA 어린이집		5	
여성권리찾기 서막 '혼인신고운동과 축첩반대운동'	편집실	6	1쪽
최초의 YWCA 파출부 도입, 여성직업교육의 역사		7-8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상담, 소비자운동		9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전당, 한국YWCA회관		10	
나눔장신 배우고 실천하는 YWCA 바자회		11	
최초의 재활운동 '고개리북역방'과 '아내바다'		12	

### ■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YWCA를 사랑하는 용기	유성희	1-2	5쪽
왜 성찰과 고백인가	한영수	3	
장착한 고백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명혜	4	
새정부에 바란다	안수경	5	
종교개혁 정신과 성령운동	곽지영	6	
미래를 키우는 1만원 1922 장학금	이종임	7-8	4쪽
탈핵 국민의 결장이 옳다	김영자	9	
모든 평화는 한쪽의 양보에서 시작한다	장미란	10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권희	11	
종교개혁 500주년 변경점에서	김영희	12	

### ■ 말씀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종교개혁'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임성빈	1-2	4쪽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임항자	3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장상	4	
믿음이 한반도를 구원하노니	장상	5	
고통의 기억과 저항	안선희	6	
화해의 영성	김경은	7-8	5쪽
경쟁의 그늘	안선희	9	
영성과 성찰	김경은	10	
영적 분별	김경은	11	
내 영혼의 유일한 바람	송기성	12	

### ■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2017년도 정기총회 현장			6쪽
YWCA 2017년 주요사업		1-2	8쪽
세상을 바꾸는 1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편집실		10쪽
한국YWCA 95주년 특별좌담 'YWCA 사명을 다시 생각하다'		3	6쪽
YWCA 대선의의제: 탈핵, 성령운동, 청년정책	중점운동국	4	6쪽
정책선거이끄는 YWCA 유권자운동, 유권자선언	대선대응TF		8쪽
새정부 정책과 공약: 탈핵, 에너지전환, 실질적 성령운동, 청년 일자리 만들기	편집실	5	6쪽
YWCA 유권자운동, 희망세상 만들기	편집실		8쪽
시대정신은 성령운동, 유권자선언	박길자	6	6쪽
좌담: 새정부 여성정책과 YWCA 성령운동	성령운동위원회	6	8쪽
2017 여성평화주간 심포지엄 '여성의 힘으로 상호공존의 평화를'	편집실		10쪽
특별좌담 'YWCA 청년성을 말한다'	편집실	7-8	6쪽
마릿수 채우기는 그만! 평소에도 청년에 관심을	김현수		10쪽

청주YWCA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탐방	문윤희	7-8	12쪽
마산YWCA 대학청년Y 회원중모이하기	대학청년Y		14쪽
신교리56호기 운영 결린공론화 첫 시민참여탈핵담론 장을 열다	변남순		6쪽
에너지 전환과 교회의 역할 '독서남은 전기 안 쓰십니까'	이진형	9	8쪽
YWCA 신교리56호기 백지화 전국 캠페인	편집실		10쪽
청소년 탈핵을 외치다 '10만년째의 핵폐기를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박상헌		13쪽
2017 정책협의회 '젠더관점으로 지역운동 강화하자'			6쪽
활동가 성평등 인식조사를 통해 본 YWCA 성평등운동	편집실	10	10쪽
95주년 특별기획 '청년이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	최선화		16쪽
신교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의 길	장재연		12쪽
에너지전환과 자립,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성인심	11	14쪽
95주년 특별기획 'YWCA 첫 지역조직 광주, 95주년을 맞다'	문윤희		16쪽
한국교회의 위기와 개혁	박득훈		18쪽
청년, 여성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달밤	12	20쪽
작은 교회가 답이다: 여성의 교회, 모두의 교회	안지성		22쪽

### ■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한국YWCA 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	편집실		11쪽
95주년, 95개할 지금도 지속되는 종교개혁	김형국	5	14쪽
제2회 YWCA7 밝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편집실		16쪽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운동의 길을 묻다	최민자		12쪽
교회 성차별과 여성혐오 위장된 소명, 감춰진 차별	김수진	6	14쪽
2017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회보			6쪽
여성평화순례 현장 '한반도 평화 위한 통일의 씨앗을 심다'	편집실	11	8쪽
여성평화순례 참가기 '백두담에 오른 감동은 통일의 감격'	참가자		10쪽
2017 성탄예배 전경을 그치고 평화를 허락하소서			6쪽
사진으로 돌아본 2017	편집실	12	8쪽
2017 한국YWCA 10대 뉴스			12쪽

### ■ 이슈

제목	필자	월	쪽
청년들이 뽑은 대선 키워드 '소통 말고 뜻이 중헌디?'	김수진	3	16쪽
'세월호와 우리의 선택'	문미란	4	10쪽
YWCA는 왜 평화순례를 떠나는가	배정미		20쪽
평화의 길을 '2017 여성평화주간 & 서울YWCA 95주년 시민 걷기축제'	편집실	5	22쪽
대선 이후 YWCA 탈핵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원영희		21쪽
신교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	편집실	6	22쪽
한국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 일본 원전 이야기	티케스쿠 미노루	9	18쪽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거짓말	남태제	10	12쪽
YWCA 신교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편집실		14쪽

### ■ 성평등

제목	필자	월	쪽
성평등 사회를 위한 헌법개정에 나서자	김은경	1-2	18쪽
3.8 세계 여성의 날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이주영	3	10쪽
일본군 위안부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한 전략워크숍'	천유란	4	14쪽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정책토론회 & 2017 '동일임금의 날' YWCA 캠페인	문윤희	6	18쪽
경기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속에 YWCA 무엇을 할 것인가'	임주현	7-8	18쪽
젠더관점에서 본 성폭력, 가정폭력	김은혜		20쪽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개성안 해설	양선희	9	32쪽

## 2017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 ■ 청년

제목	필자	월	쪽
18세청장권 실현운동 결혼 입대 취업 면하는 되는데 투표는 안돼? "잊지 말아요, 세월호"	김지은	1-2	14쪽
'강남역 사건' 그후 1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강신혁	5	23쪽
'거룩한 독서로 만나는 <장년예수>	대학청년Y	6	24쪽
청년 솔직토크 '차별받아 봤니?'	이찬진	9	22쪽
청년 솔직토크 '열정페이와 노동권'	대학청년Y	11	28쪽
청년 솔직토크 '열정페이와 노동권'	회원	12	28쪽

### ■ 칼럼, 강연

제목	필자	월	쪽
조기 대선과 한국사회 변화 과제: 통령 선거 무었을 바꿀 것인가?	편지실	3	20쪽
유엔을 통한 국제연대: 한국YWCA 도전과 과제	김은경		12쪽
김위의 평화학교 1차포럼 '청산하지 못한 친일 분단과 전쟁이 남은 한국군 위안부'	손서정	4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조호연	6	16쪽
기독여성청년들의 고민과 고민하는 침묵: 사모강도어느날이다	김수진	7-8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무를 끊은 엄마들	장민희	10	20쪽
김위의 평화학교 5차포럼 '북한의 시장화, 체제변화 가져오나?'	신미희		18쪽

### ■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Y와 성장한 재건 1년	대학청년Y		18쪽
Y-틴 전국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특강	편지실	1-2	20쪽
청소년 탈핵캠페인 '나는 왜 화요일마다 명동을 찾아오나?'	박상현		22쪽
'No More 후쿠시마' 제150차 탈핵캠페인	김상은		10쪽
YWCA탈핵주간 전국캠페인	편지실	3	12쪽
2017 유엔여성차별위원회 "무관심이 폭력이다"	참가단		14쪽
한국YWCA 창립 95주년 기념예배가림식 열린다	편지실		18쪽
제2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수상작	편지실		19쪽
기독언어장애여성주의가필요한 이유: YWCA기독여성주의 연구모임	최지영	4	20쪽
2017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포용 회담	함희경		22쪽
제6차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평화비' 모금 나서다	문윤희		24쪽
탈핵사이강사 아카데미 '도봉산속에서 탈핵을 만나다'	공은혜	5	
제3차 기독여성주의 연구모임 '여성의 눈으로 성서 다시 읽자'	김경민		26쪽
김위의 평화학교 3차포럼 '세대청소녀들 북한교육 달라질까?'	이복희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대한민국은 가사노동자특별법에 응답하라!	편지실	6	28쪽
제7차 기독여성주의 연구모임 '왜 페미니즘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나연수		22쪽
YWCA 여성 아카데미 '나는 페미니스트였다'	이보경	7-8	24쪽
김위의 평화학교 4차포럼 '일자만 가까운 미래, 통일을 준비하자'	강선임		26쪽
2017 히로시마 평화순례 참가기	백보람		20쪽
Y-틴 전국위원회 '인권엔 나이는 없습니다'	천유란	9	24쪽
대학청년Y 전국위원회 '우리가 만든 역대급 대회'	문윤희		26쪽
성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팝핀' 오픈	홍현정		28쪽
한밭개장과 여성대표성 '일다물면 아무 것도 못한다'	문윤희	10	24쪽
돌봄임원 워크숍 '가사근로자법 이면엔 이뤄질까?'	이희정		26쪽
농촌과 페미니즘이 가닿거나 한가	달리		20쪽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수상소감	신미희/최영애	11	27쪽
목포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손지수		30쪽
중견실무활동가 해외연수 '오카나와에서 만난 평화'	박성희		32쪽
포항지진은 왜 일어났는가?	김성욱		26쪽
희망나눔콘서트 관람후기 'You Are Not Alone'	참가자	12	30쪽
동해YWCA 30주년 기념식	최순옥		32쪽
4차 산업혁명 미국연수 '좋은 사회를 만드는 시민플랫폼'	박은실		34쪽

### ■ 회원YWCA 현장을 찾아서

제목	필자	월	쪽
광주YWCA 두레산악회	편지실	5	28쪽
고양YWCA 성인지역량 강화교육	남궁혜경	6	30쪽
서부지역협의회 평화통일 해외연수	최명희	7-8	28쪽
평택YWCA 불해랑학교	정해근	9	30쪽
2017 전국 나눔장터8매달아 밥먹자	편지실	11	34쪽

### ■ 인터뷰, 대담, 좌담

제목	필자	월	쪽
'고의순나눔기금' 기부한 이봉진 박사	편지실	1-2	16쪽
도로서 씨재단 프로그램 총괄담당	홍현정	4	23쪽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손지수		25쪽
<디어 마이 프렌즈> 노희경 작가	편지실	5	18쪽
좌담: 새정부 여성정책과 YWCA 성평등운동	편지실	6	8쪽
특별좌담 'YWCA 청년성을 말한다'	편지실	7-8	6쪽
대담: 하산규 YWCA 탈핵운동대사를 만나다	신미희	9	14쪽
부산일보 '클린에너지' 특별취재팀	편지실		16쪽
시집 출간한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 유인애씨	문윤하/이혜린 손지수	10	22쪽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희망나눔콘서트에 함께하는 이유'	편지실	11	18쪽

### ■ 원로에게 듣는다

제목	필자	월	쪽
임경숙 마산YWCA 명예이사		1-2	24쪽
홍기자 전주YWCA 중경회장		3	22쪽
유은옥 수원YWCA 중경회장	편지실	4	26쪽
김정희 인천YWCA 중경회장		5	30쪽
조규혜 광주YWCA 명예이사		6	32쪽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7-8	32쪽
이종경 김은경 연합회 위원	김수진	9	35쪽
김숙희 연합회 중경회장		10	28쪽
박은경 연합회 중경회장	편지실	11	36쪽
차경애 연합회 중경회장		12	36쪽

###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영화 '미생': 사라진 여자'	김상은	1-2	26쪽
영화 '사일런스'	이경순	3	24쪽
도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이윤경	4	28쪽
도서 '포스트휴먼 신학'	유미호	5	32쪽
영화 '오두막: 눈부신 기적이 시작되는 곳'	신 선	6	34쪽
뮤지컬 '더 북(The Book)'	최기영	7-8	36쪽
예수께 의탁한 백년의 삶 '백년을 살아보니: <예수>'	백수경	9	38쪽
영화 <아이 캔스피크>가 말하는 기억의 정치	이윤숙	10	30쪽
82년생 김지영, 교회청년 김지영	이한빛	11	38쪽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영화 <로마서 8:37>	김지혜	12	38쪽

### ■ 세계YWCA

제목	필자	월	쪽
2017 아시아지역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아시아YWCA 노력'	김은영	7-8	30쪽
YWCA-YMCA 기도주간 '소리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서'	편지실	11	24쪽

# 월간 한국 YWCA



월간 <한국YWCA>를 보면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정기구독으로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 지금, 신청하세요!

- **구독료 1년 2만원(10회 발송)**  
계좌이체 2만원 일시불 입금,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CMS납부 CMS 출금이체 신청서 작성
- **신규구독 신청**  
신 청 구독명단(이름, 주소, 연락처)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십시오  
이 메 일 ywcapr@hanmail.net  
문의전화 02-774-0230 홍보출판팀

